

# IV 민속놀이





음성거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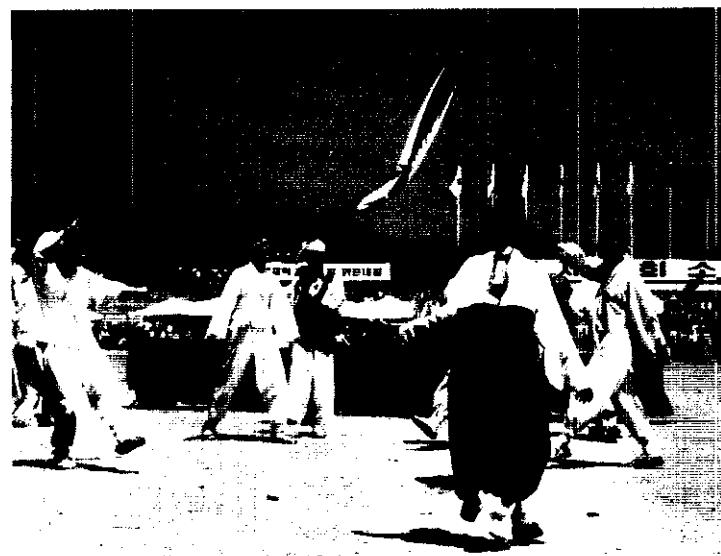
까치내 상여놀이



솟대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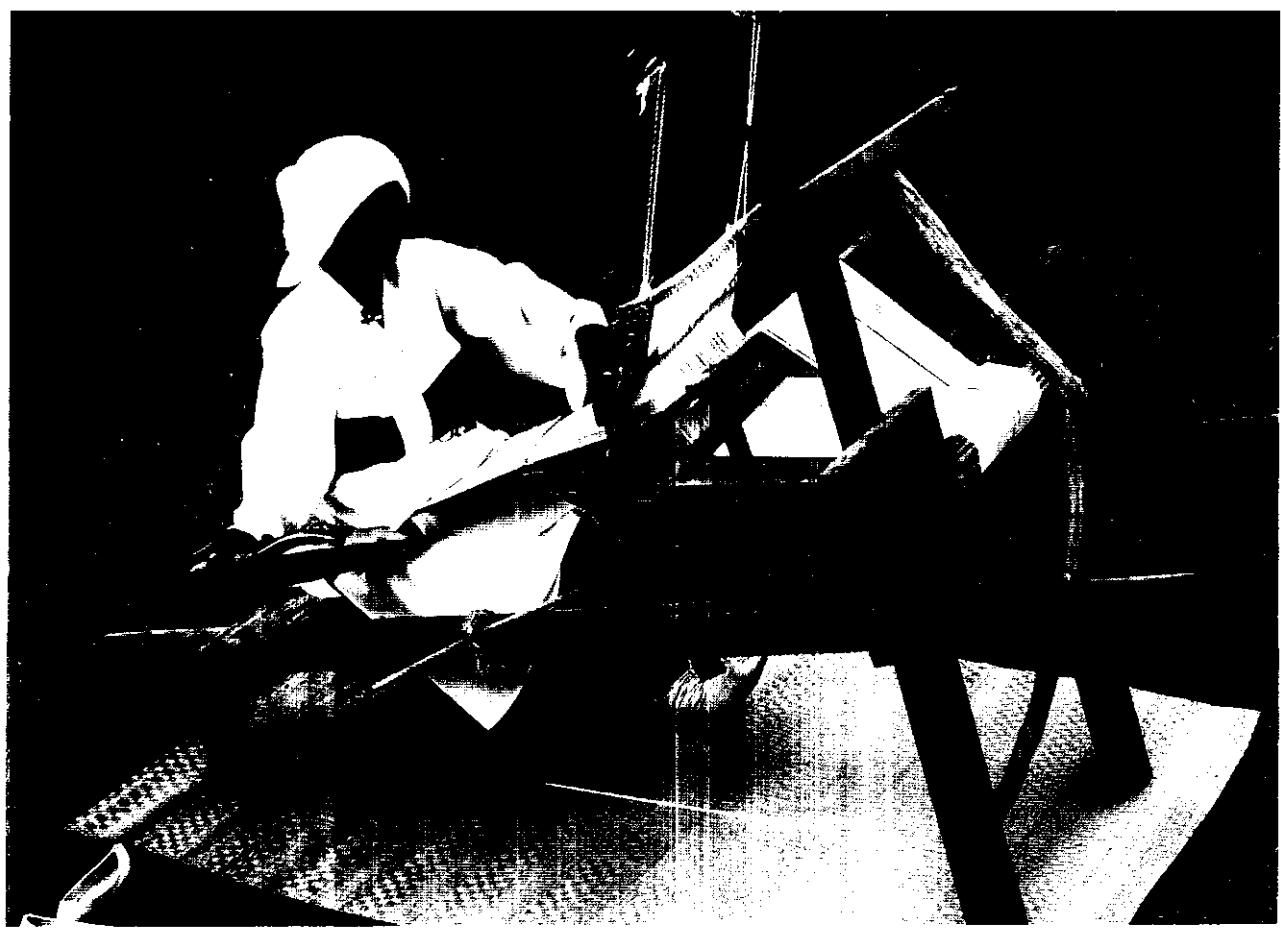
미호천 방축놀이



단양 띠벗놀이



제천 봉양 파대놀이



영동 길쌈놀이



속리산 탑돌이



집터 다지기

# 단양 민속놀이

## 1) 각기선돌봉치기

각기선돌봉치기는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소리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단양민속팀

### □ 해 설

각기선돌봉치기는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서 전승되었던 선돌제의 민속 놀이를 말한다. 각기리에는 선돌이 앞발 부락 어귀에 동쪽과 서쪽으로 짹을 이루고 서 있다. 암수의 성을 형상하듯이 뾰족한 형태와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남성을 형상하는 서쪽의 남근석은 높이 275cm, 너비 220cm, 두께 60cm 규모로 세 모꼴 형태에 가깝다. 흔히 ‘솟바위’라고 한다. 여성을 형상하는 동쪽의 치마석은 남근석과 17m 간격을 두고, 높이 180cm, 너비 171cm, 두께



각기리 암바위



각기리 솟바위



봉치기 하는 장면

37cm 규모로 아담한 형태이다. 흔히 '암바위'라고 한다. 두 선돌에는 지름 5~8cm, 깊이 2~3cm 가량의 다양한 성혈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남근석 둘레에는 길이 4m, 너비

3.5m, 높이 60~70cm 규모의 원추형 놀탑이 있다. 제의를 위해 조성한 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기리'라는 명칭도 '돌기둥이 뿐같이 솟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각기선돌봉치기에서 '봉치기'는 '잘 보관한다' 또는 '잘 싸매어 두다'라는 의미로 부락민들이 선돌을 공경해 제의를 받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각기리에서는 매월 정월 초사흗 반에 생기복덕을 가려 선정된 제관 및 집사들이 서낭제를 지낸다. 이튿날 아침에는 부락민들이 모여 제물을 읍복하고 선돌에 옷(짚)을 입혀준다. 남근석에는 용마름을 덮어주고, 치마석에는 이영을 두른다.

## □ 구 성

출연진은 농악대 19명(펭파리 3명, 징 3명, 북 3명, 장구 3명, 새납 1명, 소고 3명, 범고 3명), 깃발 4명(영기 2명, 농기 1명, 서낭기 1명), 소품 7명(지개 5명, 이영발침 1명, 용마름 1명), 부락민 23명(총장 1명, 제관 3명, 집사 2명, 축관 1명, 제의 참여자 16명) 등 전체 53명이다. 총장의 사설을 시작으로 출연진 전체가 남근석과 치마석에 재배한다. 이어 선돌을 보관하는 의식을 치른다.

### (1) 입장

원형으로 성련하여 관객에게 인사한다. 촌장이 “서낭제도 잘 치렀고 읍 복례도 마쳤으니 선돌에나 내려가 보세”라고 하면, 그 소리에 맞춰 한 바퀴 흥겹게 둔다. 농악대는 가장자리로 불러선다. 부락민 대표 두 명이 짚단에 불을 붙이면, 출연진 전체가 불을 타 넘어 한 바퀴 돌아 선돌 앞에 모인다.

### (2) 선돌제

제불을 진설하고 출연진 전체가 남근석과 치마석에 재배한다. 부복한 후 고축한다. “유세차 모년 정보월 간지 삍 초사일 간지 선돌제 상향”

### (3) 봉치기

부락민들이 한쪽에서는 용마름을 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영을 엮는다. 일부는 새끼줄을 끈다. 남근석에는 용마름을 넣은 후 새끼줄로 단단하게 맨다. 치마석에는 이영으로 치마를 두른 후 새끼줄로 단단하게 맨다. 남근석 앞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의 복락을 기원한다. 치마석 앞에서는 남성들이 장난을 친다. 치마석의 치마를 둘추기도 하고, 성혈을 보며 모의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모습에 여성들은 작대기를 들고 남성들을 훠돌아친다. 남성들은 흔비백산 도망가다가 멈춰 서서 여성들 앞에서도 모의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은 작대기를 들고 다시 남성들에게 달려든다. 이때 촌장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만들 하게나”라고 하면, 바로 농악대가 신명 나는 판을 만든다.

## □ 소 리

### ● 노래가락

업동설한에 쓰라린 선돌은 봉치기로 넘기고  
우리낳고 거시기는 오늘밤만 기다린다  
삼봉에 떠오른 달빛은 내일이면 다시보구요  
서울간 낭군님은 언제 돌아오려나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선돌에 도타운 봉치기 우리네 마음일세  
남석봉치기 여석봉치기 겹겹이 하구요  
마을에 좋은 일들이 막 몰려 오리네  
주야장창 지키는 선돌은 마을에 보배구요  
우리색시 지키는 이내 맑은 가문에 보배라오  
후련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 2) 도담삼봉용왕제

도담삼봉용왕제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도담 삼봉용왕제소리로 5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향토문화연구회(2000년), 매포주부농악(2005년)

### □ 해 설

용왕제는, 원칙적인 의미에서 풍어를 기워하는 무당굿 중심의 마을굿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당골의 무당굿에 마을의 풍물굿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내륙에서는 용왕제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단양군에서 전승되었던 도담삼봉용왕제의 의미를 이러한 전승의 특수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도담삼봉용왕제는 단양군 삼봉나루에서 소금 배의 수로 안녕을 기원 하던 뱃사람들의 의식이다. 삼봉나루에서 소금 배의 운항은 7~8월에 장마가 진 후, 즉 남한강의 수량이 풍부해진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도담삼봉용왕제는 소금배가 한양 뱃길을 무사히 왕래하기를 기원하던 제의로 소금 배를 처음 띠울 때 뱃사람들을 중심으로 삼봉나루에서 이루어졌다. 제관은 어떤 제약 없이 뱃사람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당연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소금 배가 여울을 건널 때는 전문 여울꾼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까지 힘을 합쳤다. 소금 배가 여울을 건너면 뱃사람들과 주민들은 작별하며 소리로써 함께 춤겼다. 이 소리를 흔히 '도담삼봉용왕제소리'라고 한다.

## ▣ 구 성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도담삼봉용왕제소리는 입장(깃발, 사물, 부녀자, 아동, 뱃꾼) → 인사굿 → 한마당누이굿 · 용왕제 준비 → 길치우기(습출치기, 길쓸기, 진흙뿌리기) → 제사상차리기 → 용왕제 고사녁납풀이 → 소지올리기 → 뒷풀이굿 → 인사굿 → 퇴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 소 리

### ● 띠뱃노래(소금배 노래)

올라왔소 소금배가 도담삼봉 양반들아  
금년에도 철석철석 소금배가 낭도했네

기다리던 한양손님 어서나와 반기시오  
강물따라 머나먼길 뜻대달고 올라왔소  
어서어서 물러주게 동남풍아 불어주께  
영월영춘 올라가네 도담삼봉 갈보들아  
술걸려서 가져오게 목이만라 못가겠네  
수리술령 내려올때 다시한번 놀다가세

못믿을진 한양손님  
닻줄달아 물러놓니 부지거쳐 떠나가네  
언제가면 언제오나 기약없이 떠나가네  
잘가시오 한양손님 머나먼길 이별일세  
잘있거라 갈보들아 변치말고 잘있으면  
명년삼월 돌아와서 다시한번 만나보세  
아이가나 한양뱃길  
비틀비틀 소금배야 서러워서 못가겠네

### ● 용왕제

해동조선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도답리  
앞강물에 기하시는 용왕님 전 노구메다 정성드려올제  
상탕에는 메를짓고 중탕에는 목욕하고  
향노향합 물갖추고 양초한쌍 불켜놓고  
소지삼장 드린후에 시루덧번 바를적에  
일등미를 골라다가 한번씨려 하생미요  
두번씨려 중생미요 세번씨려 삼생미요

스물한번 씨를후에 이섯구멍 동시루요  
여덟구멍 중시루고 열두구멍 대시루에  
시루덧번 빨리놓고 정화수를 드릴적이  
온하수를 길러가니 선녀들이 목욕한물 부정하다 세쳐놓고  
동해수를 길러가니 흑룡들이 놀라간불 부정하다 세쳐놓고  
남해수를 길러가니 황룡들이 놀라간불 부정하다 세쳐놓고  
서해수를 길러가니 청룡들이 놀라간불 부정하다 세쳐놓고  
길을곳이 바이없이 용궁속에 옥조수요 흘러가는 비꺼수를  
얼손으로 길러다가 일월같이 반쳐놓고  
하느님전 빙자하니 구만리요 장전이라  
별리계셔 못빈고서 터주님전 빙자하니  
삼진리라 이강산에 찾을곳이 바이없고  
서해용왕 빙자하니 육로길로 철리되고 수로길로 만리되니  
가야한길 너무멀어 이곳명당 한강수라  
도담삼봉 앞강물에 가하시는 용왕님전  
노꿈에정성 드리오니 소례로서 드린정성  
태례로서 받으시고 대례로서 받은정성  
빛으로서 흠향받아 고맙다고 하옵시고  
일년이면 열두달에 과년이면 열석달에  
한달이면 서른하고 반달이면 보름이라  
하루하면 열두시를 누리동실 우리선원  
수로천리 한양길을 무사하게 왕래토록 제발접시 하옵소서

# 제천 민속놀이

## 1) 농악싸움

농악싸움은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1995년 제2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화당농악대(1994년), 백운화당농악대(1995년)

## □ 해 설

제천시 백운면에서는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 주요 명절을 기해 농악싸움을 벌였다. 백운면의 각 부락이 청룡 편과 백호 편으로 나뉘어 농기의 꼭대기에 매달린 봉깃(꿩깃)을 먼저 빼앗으려고 했다. 흥겨운 바당놀이를 펼치는 가운데 봉깃(꿩깃)을 먼저 빼앗은 편이 '형님농악'으로 대우를 받았다. 풍농을 기원하는 농사에 부락의 화합을 다지는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 2) 명도상여놀이

명도상여놀이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한태우가 소리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제천문화원

## □ 해설

제천시 명도리에는 대풀, 중풀, 소풀 등  
규모에 따른 세 종류의 상여가 있다. 대풀은  
32명의 행상꾼들이 베며, 소풀은 20명의 행  
상꾼들이 벤다. 다만 풀을 벤 후 연초대풀을  
하나 더 끼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4  
명의 행상꾼들이 가감된다. 명도리에서는  
주로 소풀을 사용한다. 상여놀이는 '장례놀  
이'라고도 하는데, 춤상 전날 밤에 상여를 미  
리 틀어놓고 노는 '대풀음', 이튿날 상여를  
장사까지 매고 나가면서, 그리고 상여를 해  
체하고 봉분을 다질 때 노는 '화다지', 행상  
꾼들이 특히 밭사위를 데리고 노는 '진사놀  
이' 등을 아우른다. 밤이 날 아침에 장사로 나  
아가는 상여 행렬을 보면, 반드시 명정이 서  
고, 그 뒤로 요여, 앞소리꾼, 상여, 상주, 참  
예사 등이 들어선다. 행상꾼들은 앞소리꾼  
의 소리에 따라 호흡을 맞춰 일의 수고로움  
을 넘다. 장사까지 평坦한 길이 있는가 하  
면, 비탈길도 있고 때로는 다리가 있기도 하  
다. 비탈길 앞에서 노는 "상여가 가질 않는다"고 상여를 앞으로 뒤로 뺄다 하  
며 장난을 친다. 다리 앞에서도 "사우 다리 놓아라"고 장난을 친다. 상주들  
은 행상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담배를 선물하며 달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행상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상여를 뒤로 물리  
는 법은 절대 없다.



명도상여놀이 – 상여 운반



명도상여놀이 – 달구질

## □ 구 성

명도상여놀이는 상여가 집안을 출발하여 장지에 이르기까지, 또 시신을 매장하고 달구질하기까지 장례 과정을 상여소리, 외나무다리건너기, 시신 매장, 달구소리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선소리꾼이 <상여소리>를 선창하고, 상여꾼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행렬은 명정, 앞소리꾼, 상두꾼, 맨장행렬, 애도행렬 등의 순이다.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여꾼들이 외나무다리 건너기를 시연한다.

## □ 소리

<상여소리>는 상여를 운반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앞소리꾼이 얘기고 행상꾼들이 받는 형식이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박자를 사용한다. 집안에서 떠나올 때는 “오호 오호” 두 박자를 사용하고, 장지로 가다가 쉴 때까지는 짹소리를 사용한다. “오호 오하”는 세 박자로 맞춘다. 장지에 도착하면 세 박자로 끝내고 “와～～” 하면서 상여를 내려놓는다.

### ● 상여소리 일부

어허 오호아 아해이요

어허 오오하

어허 오하 에해이요

(선) 어허 어허 오오하 에해이요

(후) 어허 어허 오오하 에해이요

(선) 여보시오 기오님네 이내소리 들어보소

(후) 어허 어화야 애해이요  
이제가면 나온사람

### ● 상여소리 일부

어허호야 애해이아호 (후렴)  
여보시오 방근님네  
이내소리 좋다말고 어이나갈꼬 어이나갈꼬  
실날같은 약한봄에 태산같은 병이들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꽂진다고 서러마라  
병년봄이 돌아오면 목련꽃이 피건만우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일가친척 많다해도 오늘누가 대신갈까  
서승길이 밀다더니 대문밖이 서승이네

〈회다지 소리〉는 봉분을 다지고 만들 때 부르는 노래이다. 광중에 하관하고 사방으로 흙과 회를 친 다음 봉분을 쌓는데, 봉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행상꾼들이 발을 번갈아 가며 밟는다. 또 연초대를 빼어 짓누르고 박으며 흙을 다지는 행동을 계속한다. 이때 행상꾼들은 앞소리꾼의 배기는 소리를 받는다. 〈회다지소리〉는 산과 강의 균율을 나열하고 그 지맥으로 형성된 전국의 명산과 강을 거론한 다음, 이 뒷자리가 명당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 회다지소리 일부

애호리 다래 (후렴)

여봄소 기원님네 이내소리를 들어보소  
광중안에는 햇내가나고 광중바깥은 술래로나  
선천지 후천자는 억만세계 뚫었느라  
산자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자조종은 황하수라  
곤륜산 입진맥으로 우리조선 생겼어라  
백두산은 주산되고 한파산은 안산됐네  
판도강산 굽어보니  
한경도라 백두산은 압록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묘향상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재경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임진강이 둘렸구나  
강원도라 금강산은 세계의 명산이고 천하의 재일이라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금강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섭진강이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렸구나  
에호리 다래 이산보터 잡을적에 누구누구 잡았던고

### 3) 오타별신제

오타별신제는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상쇠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52명이 출연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출연 ; 제천민속팀(2001~2003년), 오타별신제보존회(2004~2005년)

## □ 해 설

오토별신제는 충청북도의 유일한 서낭별신제이다. 오토별신제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제천시 수산면 오토마을이 약 400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오토별신제의 유래를 추정할 따름이다.

오토마을에는 다섯 개의 자연마을마다 각기 서낭을 모시고 있다. 마을의 주산(主山)에 마을 최고신인 산신을 모시고, 마을 입구 및 다섯 봉우리마다 서낭신을 모신다. 이를 흔히 상·하당으로 일컫는다. 별신의 뒷풀이격인 축제마당에는 음주가누를 걸들이 제의형 풍물놀이가 행해진다. 또한 별신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영신 → 오신 → 송신의 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오토별신제 – 강신



오토별신제 – 본당 제풀



오토별신제 – 허재비놀이



오토별신제 – 허재비놀이

## □ 구 성

### (1) 입장

농악대, 제의 수행자, 주민들 순으로 입장한다. 농악대는 농기를 선두로 하며, 두 사람이 서낭대를 잡고 그 뒤를 따른다. 다음으로 여장이 따르며, 법고-장고-북-징-재파리-꽹과리 등 순으로 입장한다.

### (2) 농악놀이

농악대는 상쇠와 부쇠를 선두로 재파리-징-북-장구-법

고-여장 등의 순으로 원을 만들어 돈다.

### (3) 상당서낭제

농악대와 제의 행렬이 상당에 도착하면, 농악을 올리며 상당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두 바퀴 돈다. 농악대는 제불을 전설하는 농안 상쇠와 부쇠를 선두로 재파리-징-북-장구-법고-여장 등의 순으로 원을 만들어 돈다. 원 안에서는 여장, 부동, 포수, 새납 등이 흥겹게 춤을 춘다. 제의는 재배, 현작, 소지 순으로 진행한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올린다.

### (4) 강신

농악대의 농악 가락이 빨라진다. 무동과 여장은 신이 내리기를 바라며 손을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인다. 무동이 제일 앞줄에 서서 춤을 추고, 그 뒤로 여장이 선다. 이어 법고-장구-북-징-새납 등이 서고, 상쇠와 부쇠는 제관의 측면에 선다. 제관은 농악대 맞은편에서 서낭대를 향해 배례하고 잠시 뒤 서낭대의 혼들림으로 신의 강림을 확인한다. 농악대는 농악을 일시 중단한다. 제관은 신이 강림함에 감사의 기원을 올린 후 하당으로 내려 가시기를 청한다.

### (5) 작은재서낭, 구실재서낭, 흰뜨재서낭제

상당서낭제와 제의 절차 및 진행 방식이 동일하다

### (6) 본당서낭제

본당 입구에서 “와~” 하고 합성을 지르며 뛰어 들어온다. 농악대는 느티나무를 두 바퀴 돌며 요란하게 쇳소리를 낸다. 이곳에 지금까지 보여온 다섯 서낭신과 붉은당[산신당] 서낭신, 느티나무 서낭신을 좌정시킨다. 제의는 재배, 현작, 소지 순으로 진행한다. 다른 서낭당과 달리 본당에서는 제

의를 진행하는 동안 농악을 울리지 않는다.

### (7) 허재비놀이

신명꾼 두 명이 농악대의 가락에 맞춰 허재비를 들고 춤을 춘다. “자! 당나라야~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아! 서낭님은 다 집으로 돌아가셨어. 당나라 너희들은 벅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했으니 …… 떡에다가 저 술에 한 잔 먹고 놀고서 썩 물려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벅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니. 여기서 떡에다가 술에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에다 양치질해 가지고 쳐먹구서 잘 놀다가 돌아가라. 당나라야 솔솔 놀아라 …….” 이때 제관의 사설에 맞춰 허재비를 어르기도 하고 허재비에게 싸움을 시키기도 한다. 혹은 모의 성행위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친다. “여기서 한 번 놀았으니, 떡이랑 술 한 잔 먹고 또 한 번 놀아야지. 당나라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몽둥이로 두들겨 맞어. 군발 없이 돌아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매를 맞어. 마지막으로 이 술 한 잔 먹고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 다시 농악대의 농악에 맞춰 신명꾼이 허재비를 들고 춤을 춘다. 제관은 ‘허재비가 말을 듣지 않으니 매를 때릴 수밖에 없다’고 호령하며 신명꾼에게 매질을 하라고 한다. “멈춰라! 당장 멈춰라. 당나라 너희들이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매를 맞아야지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여기다 엎어라. 좋아리를 때려야지 안 되겠다.” 신명꾼이 허재비를 땅에 눕혀 놓고 몽둥이로 내리친다. 얼마간 허재비를 때리다가 제관이 ‘이제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한다. “이제 맞을 대로 맞았으니까, 다리 몽뎅이가 뚝 부러지도록 맞았으니까 한 번 더 놀려봐.” 신명꾼은 허재비를 들고 춤을 추며 어르다가 모의 성행위를 하며 한바탕 놀난다. 제관은 허재비가 마을의 액운을 모두 가져가 주기를 기원한다. “가만히 듣고 있어. 이 놈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에! 마른 것은 싸 가지고 가고 진 것은 다 먹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칼로 배지를 갈라버릴 테니, 두 말 들을 것 없이 오너

에 있는 액이라는 것은 썩 끌어안고 썩 묶리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훈나.” 한바탕 농악을 치며 둘다가 제관이 농악을 맴추게 하고 한 번 더 허재비에게 호령한다. 신명꾼에게 허재비가 도무지 멀을 안 들으니 바닥에 내리치라고 한다. “멈춰라! 당장 멈춰라. 당나라 너희들이 아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를 맞아야지 아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 갔다 옆이라. 어 바닥에 내쳐야지 안 되겠다.” 신명꾼이 허재비를 바닥에 내리치면, 수수풀떡으로 화산로 쏘고 이어 술잔을 옆어버린다. 제관이 바가지에 술을 가득 붓고 미리 준비한 칼로 술을 저으며, “액운을 모두 가져가라”고 기원한다. 농악을 맴추게 하고! 바가지의 술을 모두 허재비를 향해 뿌리며 “액운을 가지고 멀리 가라”고 호령한다. 신명꾼은 허재비를 마을 바깥쪽으로 가져다 놓는다. 농악을 올리며 놀다가 중단하고 칼을 뽑아 멀리 집어던진다. 이때 칼끝이 바깥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칼을 집어던진다. 제관은 바가지를 땅에 엎어놓고 칼날이 허재비가 있는 방향이 되도록 땅에 꽂아 놓는다. “에! 이제 니가 주위를 돌아보면 안 되어. 안 가고 어슬렁거리면 대번 배지를 갈라버려. 에이 뤄!” 침을 뱉고 수수풀떡을 올려놓았던 나무판을 발로 힘껏 밟는다.

### (8) 오신

제의 수행자와 농악패가 한데 어울려 흥겹게 듣는다.

### (9) 송신

농악놀이가 끝나면 본당에서 다시 신을 청배한 후 송신한다. 제의 행렬은 본당 서낭당을 중심으로 무농-여장-농악대 순으로 배열한다. 청배를 기원하는 농안 농악대는 빠르게 농악을 올리고, 무농과 여장은 손을 앞뒤로 움직이며 춤을 춘다. 제관은 신을 좌정시키고 송신한다. “여러 서낭님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정성을 빙들어주시니, 우리 동민은 뭐라고 얘

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갑다고 감응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여러 시낭님도 자기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내 자리는 내가 찾아가야 하고, 그저 이렇게 내려오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 한 번 더 술술 놀아주시고 그저 내 자리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 대는 농악을 울리고, 대잡이는 춤을 춘다. 제관도 박수를 치는 등 어울려 춤을 춘다. 제관은 신발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애를 갖춘다. 농악은 더욱 빨라지며, 대잡이도 격렬하게 춤을 춘다.

#### (10) 뒤풀이마당

제의 수행자. 주민, 농악패가 한데 어울려 무농놀이를 하며 한바탕 놉니다.

### 4) 파대놀이

파대놀이는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지휘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6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제천민속팀

### □ 해 설

파대(破帶)는 가을철 논밭에서 새를 쫓기 위한 민속도구이다. 짚을 꼬아 만든 줄기에 삼이나 밭총, 또는 짐승 가죽 따위를 엮어 만든다. 파대를 놀 러치면 그 끝이 휘감기어 총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 파대는 태백산맥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다. 제천시에서는 파대 치는 행위를 흔



파대놀이 – 입장

히 ‘태기치기’ 또는  
‘태기친다’라고 하며,  
1960년대까지 광범위  
하게 전승되다가 단  
절되었다. 오늘날에  
는 제천시 봉양읍 구

곡리, 마곡리, 삼거리 일대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 구 성

### (1) 입장

농악대(상쇠-부쇠-징-북-장구)가 앞서며, 그 뒤를 주민들이 따라 입장



파대놀이 – 파대를기

한다. 주민들 가운데  
소녀 세 명은 머리를  
숙인 채 슬픈 양 입장  
한다. 소녀 세 명은  
머리를 잘라 바칠 선  
발 인원으로 전년도  
에 대동계에서 선발  
된 후 나을에서 규정  
한 금기를 준수하며  
머리카락 유지관리에  
정성을 다했다. 소녀  
들의 안타까움을 나  
타내기 위해 농악을

매우 느리고 조용한 가락으로 연주한다. 주민들도 속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2) 원형진 구성

관중석에 인사한 후, 촌장이 “오늘 파대놀이에는 군단리 마을의 김서방을 대장으로 정했으니 잘 따르시게” 하면, 지명된 자는 주민들 앞으로 나와 큰 절을 올리고 대장의 명을 받는다. 촌장은 대장에게 파대 한 개를 전하며 파대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 (3) 머리 자르기

소녀 세 명이 원형진 가운데 앉는다. 파대꾼 세 명은 소녀들의 머리 자를 준비를 한다. 소녀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사설과 함께 소녀들의 머리를 자른다.

#### (4) 파대 틀기

삼삼오오 짹(조)을 이루어 파대 틀기 준비를 한다. 파대를 강하게 낳기어 틀면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세 명씩 삼각형으로 앉아 파대 틀기 대형을 갖춘다. 이때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파대 틀기 재료로 사용한다.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파대 틀기를 시작한다.

#### (5) 파대 다품기

잘 튼 파대일지라도 짚공예 특성상 짚이나 말총 또는 머리카락 등이 빠져 나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품기를 한다.

#### (6) 축원

파대를 대장에게 건네주면, 대장은 파대 날개를 뭉쳐 잡고 머리 위로 들

어 올린다. 파대꾼들은 파대 머리를 잡고 원형으로 둘러선다. 대장의 선창으로 축원을 시작한다. 대장과 파대꾼들은 원형을 유지한 채 오른쪽을 돌며 사설과 후렴구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한 판 놀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정렬한다.

#### (7) 축이기

파대를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파대를 불에 녹인다. 대장이 “축이세”라고 선창하면, 파대꾼들은 파대를 물 항아리에 담가 충분히 물을 먹인다. 물 항아리는 동서남북 시점 네 곳에 놓여 있다.

#### (8) 고르기

파대 머리를 잡고 전체가 땅에 닿도록 내리친다. 대장이 “고르세”라고 선창하면, 파대꾼들이 “어이~” 하며 몸을 크게 뒤로 젖혔다가 내리친다. 고르기 농작은 3회 반복한다.

#### (9) 분침하기

파대의 날개와 꼬리에 찹쌀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대장이 “분침하세”라고 선창하면, 파대꾼들이 찹쌀가루를 닦은 항아리에 파대를 담가 충분히 찹쌀가루를 묻힌다. 찹쌀가루 항아리는 동서남북 시점 네 곳에 놓여 있다. 이후 풍물에 맞춰 몸을 흔들며 파대치기 대형을 갖춘다.

#### (10) 파대치기

윗마을과 아랫마을, 건너마을과 안마을이 경쟁하듯 파대 소리를 크게 낸다. 파대 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 ① 채 치기(세로 치기) : 팔을 앞으로 반쯤 뻗어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치는 방법이다.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를 낼 때 사용

한다.

- ② 꺾어 치기 :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 방향으로 둘리다가, 파대 끝을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차켜 올렸다가 수직으로 빠르게 꺾어 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 ③ 가록 역(逆) 치기 : 한 방향으로 돌리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채는 방법이다. 파대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장중하다. 다른 방법에 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 (11) 퇴장

수장이 “오늘은 파대놀이가 마음간 잘~ 어우러지고~ 파대치기는 소리도 좋고!~ 대동단결을 통해 놀판에 풍년들고 마음이 화평하니 그만 치세나~” 하면 참여자 전원이 가운데 모여 풍선을 가락에 맞춰 한마탕 놓 후 퇴장한다.

## □ 소 리

### ● 머리 자르기

우지마라 우지마라 얘기들아~  
머리는 훈줄인 것을 내 어찌 모르겠냐마는~ 우지마라 우지마라  
풍년농사를 위야 내 눈물로써 사르노니~ 우지마라 우지마라  
마음에서는 너희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신신당부 할지니~ 우지  
마라 우지마라  
산천조부이 보고 있으니 보다 알것지만은~ 우지마라 우지마라  
진사는 대동계보에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라~ 우지마라 우지마라 얘기들아

### ● 파대 틀기

들어간다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곧추서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감아쥐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뒤로밀어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흔들어잡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얽어잡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세워둔아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마무리짓고 얼레야 땡겨라~ 얼레야 틀어라~ 얼레야 돌리고~ 얼레야

### ● 파대 다크기

정월에는 새끼 꼬아라~ 얼레야 다크이  
이월이네 가마니 짜고~ 얼레야 다크이  
삼월이면 깊신 삼아서~ 얼레야 다크이  
사월이니 장석 말아라~ 얼레야 다크이  
오월이로다 자리 깎고~ 얼레야 다크이  
유월이요 도통이 얹고~ 얼레야 다크이  
칠월칠석에 파대 틀고~ 얼레야 다크이  
팔월이면 명석 매고야~ 얼레야 다크이  
구월이면 삼태기 묶어~ 얼레야 다크이  
시월이면 이영 잇고서~ 얼레야 다크이  
동짓달순 용구새 놓고~ 얼레야 다크이  
섣달에는 한숨 자세나~ 얼레야 다크이

## ● 축원

신남선녀 청춘을 잘라만든 이파대는 열해야 어얼레  
우리마을의 액운을 파대에 신어보내고 열해야 어얼레  
산천의 온갖 날깃들을 마을에서 내불아 열어야 어얼레  
풍년농사로 천석만석 곡간을 채워 열어야 어얼레  
옥이야 금이야 키운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열어야 어얼레  
부모님 공양에 효자되고 마을에 화평들이 열어야 어얼레  
삼천리 방방곡곡에 친동처럼 빙자리과 열어야 어얼레

## 5) 팔진법놀이

팔진법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2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김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의림농악대

## □ 해 설

제천시 의림농악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의림지 및 의림지의 농경문화를 테마로 제천시 전통농악의 보존,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팔진법놀이는 순수농악으로 판굿에서 특히 채상모놀이가 놀보인다. 대체적으로 휘차고 빠른 가락이 다채로워 흥겨움을 더한다.

# 충주 민속놀이

## 1) 목계별신제

목계별신제는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6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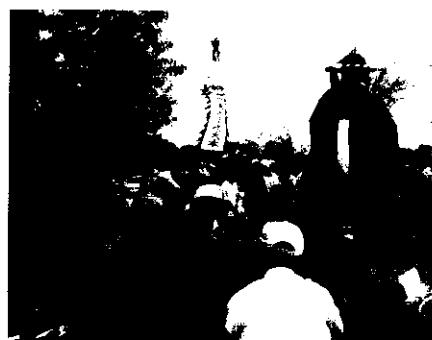
출연 : 목계별신제보존회

### □ 해 설

목계별신제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에서 상권의 강화 및 뱃사람의 안녕을 위해 정기적으로 치렀던 축제형 마을제사이다. 목계마을은 1930년대 이전까지 낚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목계마을 당시의 확대는 새로운 당시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누구든 이곳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



목계별신제 – 암줄과 숫줄



목계별신제 – 줄 이동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잔치를 벌이거나 공동의 놀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났다. 투전, 굴폐 등의 도박은 물론 상업적 성격이 강



목계별신제 – 줄다리기 1

한 유흥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녀의 노랫가락이 우선하였지만, 봉건사회의 문화에 따라 토지를 잊고 유랑하며 걸식하는 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광대짓을 하는 사당패나 길립패도

#### 북계마을 장시의 유흥을

풀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장시의 활성은 유흥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계마을의 장시는 근대화 과정의 발달과 비례하여 쇠퇴하였다.

1925~1930년 사이에 충무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리고 충주~조치원간 총부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침차 시들었고, 1973년에 콘크리트 다리가 개설되면서 나룻배도 사라졌다. 한 해 뱃길의 무사와 상권의 활성화를 기원하던 맷고사나 별신제도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행했던 대규모의 춤나리기나 남사당놀음도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삼거리에 세워놓은 '목계 줄다리기'와 별신제 유래비'를 통해서 이전의 번성함을 짐작할 뿐이다. 전문에는 팔도에서 가장 흥청댔던 다섯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또 중원문화의 발상지였으며 중심지였다는 지역적 자부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도시가 융성했던 만큼 상권의 활성화 및 그 보존을 위한 당고사, 맷고사, 별신제를 올렸으며,



목계별신제 – 줄다리기 2

난장을 벌여놓고 남사당패를 불러들인 가운데 대극모의 출다리기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구성

### (1) 입장

신장대를 앞세운 무당, 농악 A팀, 농악 B팀, 제비리마빡, 비녀목, 출꾼 등 의 순으로 입장한다.

### (2) 별신굿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당고사

당고사는 성황제의 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제장은 복계인도교 옆 봉재산(봉산, 부엉산, 부흥산 등)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목조와가 양식의 부흥당(富興堂)이다. 당내에는 중앙 정면에 서낭각시도(城隍閣氏圖)를, 우측에 용신도(龍神圖)를, 좌측에 산신도(山神圖)를 봉안하고 있다. 당고사는 원래 정월 5일부터 10일까지 지속되었다. 정월 5일 조읍에 단골무당이 광대와 악사를 대동하고 3일 동안 광대놀이를 하였다. 정월 9일에는 아침부터 각 가정을 돌며 지신을 밟는 등으로 축원을 하였으며, 밤에는 제관의 집에서 안반굿(案盤一)을 하였다. 그러나 남한강의 수운이 쇠퇴하면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자, 40여 년 전에 마을회의를 열어 제일을 정월 9일로 고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제관의 선출이 업적하지 않다. 한 해 동안 특별하게 부정한 일이 없으면, 관례적으로 마을 최고 위로와 이장[구장]이 밟는다. 제물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무당이 '조배술'을 당 안에서 직

접 담그는 등 진설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지역의 동제와 마찬가지로 약식의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 당일 해질 무렵 오후 7~8시 조음에 마을원로 및 제관 등이 복색을 갖추고 무당과 함께 제장으로 올라 촛불과 향을 지핀 후에 본격적으로 의례를 행한다. 유교식 예법에 따라 제물을 진설한 후, 무당이 <부정풀이>를 구송하여 제장을 정화시킨다. 제차(祭次)는 시종 업속하며 분향-현작-재배-축-소지 등 유교식 진행이다. 제의 후 약간의 떡을 떼어놓고 하산한다.

## ② 뱃고사

뱃고사는 납한강의 용신을 대상 신격으로 하여 '운항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제장을 용신과 조우할 수 있는 목계강변의 나루터[선착장]로 삼았다. 제일은 정월 14일을 특정일로 고정하였다. 정월에 당고사를 올리기도 했지만, 뱃사람은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세의를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용왕에게 전달하려 했다. 따라서 선주나 뱃사람이 직접 제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일 전 15일부터 나루터에 금줄을 치고, 이곳을 통과하는 뱃사람들에게 경비를 얹출하여 제물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목계나루가 한창 활기를 띠고 있었던 1909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해에 목계지역을 통과했던 배는 무려 827척이었다. 이 중에 441척은 청풍까지, 71척은 단양 까지, 65척은 영월을 넘어 영춘까지 왕래를 하였다. 행례는 제일 15일 전에 선착장에 금줄을 둘러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통신앙의 관념 속에서, 뱃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용왕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모두가 제의에 참여했다. 유교식 제차(祭次)에 의해 의례를 마친 후 약간의 음식을 떼어놓는 식의 진행이었지만, 누구든 용왕에게 배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당고사보다 훨씬 성대했으며 요란했다.

### ③ 별신제

별신제는 지역의 상권 활성 및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속제의이다. 보통 3~4년을 주기로 4월 초파일을 전후한 2~3일 동안 영신굿-오신굿-송신굿의 순으로 굿판을 벌였다. 지역의 농회장을 중심으로, 중원지역은 물문 진국 팔도의 무당들이 제의를 주관하였다. 무엇보다 팔도의 명무(名巫)들이 그들의 기예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축원을 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지역민들은 물론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던 상인들, 그리고 인근지역의 외지인들까지 한데 모여 흥청백 수 있던 장소와 시간을 목계별신제가 제공했다. 중원의 모든 무당들이 별신제를 주관했다는 김춘식의 1985년도 기록자료를 통해, 별신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화가 진척되면서 원형의 별신제가 단절되었다. 1925~1930년 사이에 중부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리고 충주~조치원간 충북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점차 시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별신제의 명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 (3)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3년을 주기로, 2월 발경에서 3월 초순 사이에 4~5일 동안 행하였다. 인구의 각 동리뿐만 아니라 충주, 원주, 장호원 등지에서 농악기를 앞세운 수 백 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줄은 정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짚으로 꾼았다. 동편[동계·내계]은 동편에서, 서편[서계]은 서편에서 짚을 마련하였다. 약 800토매의 짚을 마련하였는데, 짚을 마련하는 데만 20여 일이 소요되었다. 동편은 평산에서, 서편은 샌터산에서 10여 일 동안 줄을 꾼다. 일단 상속회(원줄)만 끈 후에 강변으로 나가서 종속회[배기수염]를 꾼다. 상속회를 끌 때는 산자들을 이용하였다. 비녀목은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에서 마련하였는데, 새질은 소나무 내지 향나무를 사

용하였다. 줄[용신]은 한쪽의 길이가 대략 백여 척에 달하는 쌍줄이었으며, 표면에는 상종석회를 붙였다. 상속에서 종속회[내기수암]를 한 가닥씩 뽑게 되므로 뒤로 갈수록 상속회가 가늘어졌다. 용두[용마루·용머리]의 길이는 7척 가량이었으며, 용부의 굵기는 1~1.5척 정도나 되었다. 겉줄의 굵기는 5cm쯤 되었으며, 험을 합해서 묶었다. 이렇게 꼳 줄의 한쪽의 길이가 70~80m 가량이 되었다. 인행 공간은 남한강변의 공터를 산았는데, 이곳을 흔히 '줄터'라고 불렀다. 편은 '동···서'를 경계로 나누었다. 동편은 동계와 내계를 아울러 구성하였으며, 서편은 서계 단독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동남서녀(東男西女) 및 남청여홍(男青女紅)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염려하였기 때문에 동편이 아거야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각 편에서 2~3명의 편장을 선출하였고, 또 이들 중에서 도편장을 선출하였다. 줄다리기 경합에 앞서, 이장[구장] 및 마을원로가 주축이 되어 약식의 당고사를 올렸다. 줄꾼들이 도편장의 지휘에 따라 일정 지점까지 이동하여 양편이 마주 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용두를 걸었다. 양편의 줄꾼들이 어느 정도 다가서면, 한 편의 도편장이 "술령수"를 띠웠는데, 이때 상대편에서는 "꼴레꼴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암줄과 숫줄이 처음으로 맞닿게 되면 양편의 줄꾼들이 일제히 합성을 질렀다. 이런 과정을 보통 세 번 거친 후에야 '줄을 길자'는 도편장의 구호가 떨어지며, 이어 "눕혀!·당겨!" 하는 등의 지시에 따라 용두를 걸게 된다. 양편의 실랑이가 때로는 석전(石戰)으로 확대되기도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남성은 상징하는 동편[동계와 내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더라도 줄꾼들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더욱이 승벽이 매우 심해서 동편은 "서편은 놓에 뚱불 먹고 죽어라!"며, 서편은 "동편은 서에 뚱불 먹고 죽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여성들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치마폭에 자갈을 쌌다고 악착같이 줄을 당길 정도였다. 줄의 움직임에 따라 도편장이 휴전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불리한 쪽에서는 경기지역이나 강원지역에서 청병을 하기도 하였다.

#### (4) 송신굿

참여자 모두가 뱃길의 무사안녕 및 풍농을 기원하는 송신굿을 펼친다.

#### (5) 퇴장

줄을 어깨에 메고 물결을 상징하는 하늘색 천을 흔들며 퇴장한다.

## 2) 무등놀이

무등놀이는 1995년 제2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한마음농악대

### □ 해 설

무등놀이는 무등을 타고 노는 민속놀이이다. 달리 '무등타기'라고도 한다. 원래 남사당패의 놀이였지만 일반 농악놀이로 확산되었다. 무등타기는 무동들의 깨끼춤과 동리, 삼동, 곡마단, 누고리, 맞동리 등 놀이 유형이 다양하다. 충주시에서는 달천지역에서 무등놀이가 전승되었다. 7월 호미씻이를 할 때 무등을 타고 놀았다. 또 면 대항 풍물놀이에서 달천풍물팀이 무등을 타고 놀았다.

### □ 구 성

무등놀이는 인사굿, 명식밟이, 십자걸이, 자진풀이, 써래질, 상모놀이, 무등놀이, 짹찌이, 사통백이, 좌우치기, 굿거리, 12발상보놀이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락은 인사가락, 행진가락, 굿거리, 자진가락, 삼채(꽃나부장단), 육채, 칠채, 짹찌이장단 등이다. 놀이의 형태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박진감이 넘쳐 저절로 흥을 돋운다. 놀이대는 꽁과리(상쇠, 부쇠, 종쇠) 3명, 징 2명, 장구 8명, 북 8명, 상모 8명, 잡색이(양반, 할멈) 2명, 농기 1명, 영기 2명, 무등 8명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놀이대는 일정한 대열을 갖춰 입장한다. 판의 중앙에서 칠채로 명식밟이를 하고, 꽃나부장단으로 동서남북 십자걸이를 한다. 십자걸이를 풀어 자진풀이로, 자진풀이를 풀어 삼채로 연행하다가 써래질을 통해 자리를 바꾼다. 이어 상모놀이를 하는데, 한 줄에서 두 줄로 갈랐다가 다시 한 줄로 만든다. 놀이대는 다시 중앙으로 집결하여 8무등 8법구로 무등놀이를 한다. 무등춤을 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무등 자리바꿈을 한다. 자리바꿈을 통해 복판에서 원을 그리다. 한참 무등춤을 추다가 중앙에서 삼층무등을 만든다. 무등놀이가 끝나면 짹찌이장단에 맞춰 가다가 서서 우측으로 숙이고, 좌측으로 숙이고, 그러다가 앞으로 전진, 또 장단에 맞춰 가다가 서서 우로 좌로 짹찌이를 한다. 이어 사통백이, 좌우치기, 굿거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12발상놀이를 한다. 이때 상쇠놀이를 겸한다.

### 3) 양진명소오룡굿

양진명소오룡굿은 1979년 제20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충주국악협회



양진명소오룡굿 – 영신굿



양진명소오룡굿 – 오신굿

## □ 해 설

양진명소(揚津溟所)는 탄금대 서쪽 대금산 아래 나루터로 달리 ‘금휴포(琴休浦)’라고도 한다. 신라시대부터 양진명소에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춘추(春秋)로 향을 내려 양진명소의 제신인 오룡(五龍)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가뭄이 들 때면 기우제를 유행기도 했다. 치성을 올릴 때에는 무당이굿을 했으며, 주민들도 농악가락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여 어울렸다. 이를 ‘오룡굿’이라고 했다. 오룡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다섯 마리 용을 상징했고, 예부터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으로 방위를 표시했다.

## □ 구 성

양진명소오룡굿은 영신, 봉신, 봉

신제, 대축사, 오신들이, 송신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1979년 제20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기

도 했는데, 당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영신굿

영신굿은 오룡을 칭배하는 굿이다. 미리 준비한 물바가지를 띄워놓고 주민들이 노래에 맞춰 물바가지끈을 서서히 잡아당긴다. 물바가지가 당도하면 물바가지로 물통이에 물을 퍼 담는다. 주민들은 농악가락에 맞춰 흥을 둘우며 한판 놀이를 펼친다. 이후 오룡을 모시고 제단 쪽으로 진진한다.

#### (2) 봉신굿

봉신굿은 오룡을 지정한 장소에 모시는 굿이다. 오룡을 정색기, 적색기, 백색기, 흑색기, 황색기로 상징하여 오룡대 앞에 세우고 제례를 올린다. 제례는 대축관의 훔기에 의해 초현, 아현, 종현의 순으로 진행한다. 초현 후에는 축분낭독을 행하며, 종현 후에는 무낭이 대축사로 굿을 평치며 독령한다.

#### (3) 오신굿

오신굿은 오룡을 단배하는 굿이다. 다섯 물통이 위에 오룡이 올라 무악에 맞춰 춤을 춘다. 분중 대표는 분중기를 흔들며 주민과 흥겹게 놀다. 오룡은 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무악과 함께 농작을 맵춘다. 사방이 조용해지면 중앙에 위치한 황룡이 공수를 한다. 다시 무악이 울리면 오룡이 춤을 추며 오룡대에서 내려온다.

#### (4) 송신

송신굿은 오룡을 돌려보내는 굿이다. 영신할 때 행렬과 같이, 처음 오룡을 영신한 굿에서 다 함께 흥을 둘우며 춤을 춘다.

#### 4) 충주호상놀이

충주호상놀이는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충주민속팀

#### □ 해 설

충주호상놀이는 충주시에서 행했던 옛 호상놀이를 재연한 작품이다.

#### □ 구 성

충주호상놀이는 대돌움(빈상여놀이), 노상가(상여소리), 회다지소리, 진사놀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대돌움은 발인하기 전날 저녁에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의 상여소리에 밤을 맞춰 보는 민속놀이이다. 진사놀이는 봉분제를 올린 후 사위에게 재답을 하며, 흙으로 안경을 만들어 씌우기거나 얼굴에 솟검정을 칠하고, 연총대에 놓여 칠끈으로 끄는 등 장난을 치며 귀가하는 민속놀이이다.

## 음성 민속놀이

### 1) 톡실가재줄다리기

톡실가재줄다리기는 2002년에 '음성향토문화연구회'를 통해 발굴되었다.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7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최우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음성민속팀

#### □ 해 설

톡실가재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서낭제를 마치고 마을잔치를 하며 행하던 민속놀이이다. 큰줄다리기에 앞선 애기줄다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톡실가재줄다리기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로 경남 밀양군 부북면 갑내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제줄다리기'와 경남 함양군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는 '기복이 힘내기'가 있다. 음성군 톡실가재줄다리기는 큰줄다리기의 연행 목적 및 경합 방식과 차이가 있다. 큰



톡실가재줄다리기 – 줄당기기 1



▲ 톡실가재줄다리기 – 줄당기기 2

줄다리기는 힘겨루기가 치열하며 승패를 중시한다. 그러나 톡실가재줄다리기는 승패보다는 마을의 화합을 중시하며, 겨울동안 움츠렸던 아이들의 생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줄은 마을에서 추렴한 벗짚으로 엮는다. 길기는 가래줄 정도이며, 길이는 9~10m이다. 편은 ‘윗담’과 ‘아랫담’으로 가르는데, 체격을 기준으로 가능한 비슷하게 가른다. 또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개인적으로 줄을 당기기도 한다.

줄을 둑에 걸고 가방이 밑으로 빼어 두 어린이가 서서 반대 방향을 보고 무릎과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러면 ‘줄도감’이 징을 쳐 시작을 알린다. 상대방보다 줄을 많이 당기거나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승리한다. 보통 3~4회 반복한다.

## □ 구 성

톡실가재줄다리기의 재현 공연은 길놀이 → 서낭제 → 마당놀이 → 가재줄다리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1) 놀이대 편성

톡실가재줄다리기 놀이대는 당기 → 농기 → 놀이기 → 제관 → 풍불꾼 → 가재줄다리기 놀이대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서낭고사를 올리기 위해 서낭당으로 이동하며 길놀이를 하는 동안 이 편성을 유지한다.

## (2) 길놀이

놀이대는 편성에 따른 대형을 갖추고, 풍물꾼이 연주하는 길금악 가락에 맞추어 마을로부터 사낭당으로 이동한다.

## (3) 당집 풍물

사낭당에 도착한 후, 우선 풍물꾼이 당집을 돌며 서낭신께 풍물로써 서낭재를 알린다. 이때 풍물은 휘몰이 가락과 고사굿 가락으로 이루어진다.

## (4) 서낭제

풍물꾼의 풍물이 끝나면, 제관의 주재로 서낭제를 올린다. 제관은 정월 초에 생기복덕을 가려 연장자 순으로, 제관 3인, 공양주 1인을 선출한다. 제관을 중심으로 당집의 이영을 보수하며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불로서 돼지머리, 밥, 대추, 곶감, 사과, 배, 술, 배설기, 통포 등을 진설한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분향-초현-아현-종현-고죽-소지율립 등으로 진행한다. 성황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惟歲次〇〇一月〇〇朔十五日〇〇沙谷里居住代表〇〇〇敢昭告于城隍之神時維孟春本洞居住人人安樂家家太平農事豐作家畜繁盛災掃滅萬事亨通冀賴神沐謹以酒果敬神奠獻尚餉食”

## (5) 놀이마당

- ① 서낭제를 올린 후, 놀이대는 편성에 따른 대형을 다시 갖추고 풍물은 울리며 가재놀이마당으로 이동한다.
- ② 가재놀이마당에 도착한 후, 둥글게 돌아가며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 때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참여하여 흥겨운 판을 만든다.

## (6) 가재줄다리기 대형

풍물은 멈추고, 어린이들이 가재준을 가지고 가재줄다리기 대형을 만든다. 이때 서낭당기, 농기, 놀이기, 영기 등은 가재줄다리기 대형 끝에서 정면을 보고 횡대로 서서 깃발을 오르내린다.

#### (7) 가재줄다리기 출당기기

- ① 줄도감이 징을 쳐 출당기기 시작을 알린다. 출당기기가 시작되면 주민들과 풍물꾼은 응원의 구호를 연신 외친다.
- ② 2~3회에 걸쳐 출당기기를 한다. 출당기기가 끝나면 어린이들, 주민들, 풍물패가 한데 일어 농악놀이를 한다. 이로써 행사를 마친다.

## 2) 거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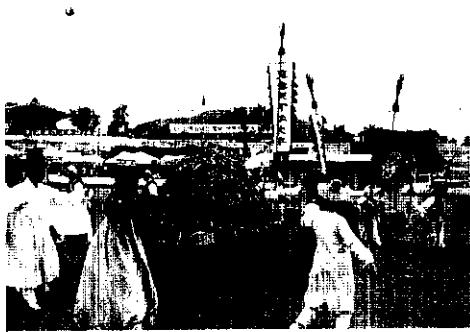
거북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39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갑산농악대(1994년), 거북놀이보존회(2005년), 음성민속팀(2006)

## □ 해 설

거북놀이는 추석날 밤에 행하는 민속놀이로, 수숫대를 벗겨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2~3명이 그 속에 들어가 마차 거북이가 돌아다니듯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바탕 놀다. 그러다가 거북이가 힘이 빠진 척 쓰러져 꼽짝하지 않는다. 진라아비가 “이 거북이가 동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이 지쳐 누웠으니 벽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집주인은 송편, 떡, 과실

등을 내어 놓는다. 질라아비가 “거북아! 머이가 나왔으니 인사나 하고 가자”고 하면, 거북이는 넓죽 점을 하고 한 바탕 뛰며 놀다가



거북놀이 – 길놀이



거북놀이 – 마당놀이

또 다른 집으로 간다. 이 놀이를 통해 집집마다 장수, 무병하게 되고, 동네의 잡귀신을 쫓는다고 생각했다. 거북놀이는 한 해의 풍년을 축원하는 풍년제의 성격과 마음과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어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흥군을 기준으로 거북놀이의 전승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여주시, 이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청미천을 중심으로 감북면, 대소면, 삼성면, 생수면, 금왕면, 맹동면 등지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 구 성

### (1) 거북이 형태와 질라아비 복장

#### ① 거북이 형태

몸통은 대나무 또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들며, 수수잎으로 봄통의 틀을 넣어 이영을 엮는다. 그리고 봄통 용구새를 약 20cm 정도로 틀어 이영 위에 엮는다. 또한 짚이나 수수잎으로 새끼거북이를 만든다. 머리는 짚으로 뱃방석을 만들 듯 엮어 만들며,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꾼을 매단다. 꼬리는 수수잎을 엮어 빗자루 모양으로 만든다.

## ② 질라아비 복장

치마는 수수잎을 엮어 만든다. 머리쓰개와 밟차개(정강이 가리개)를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 (2) 거북놀이 놀이대 편성

놀이대는 용기수, 농기수, 영기, 거북이, 질라잡이, 어릿광대(양반), 의원, 남종, 여종, 꼽추, 머슴, 농악대(상쇠, 부쇠, 징, 북, 재파리, 장고, 소고), 구경꾼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1976년에 발간한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에는 용기수 1명, 질라아비 1명, 거북이 앞에 들어가는 사람 2명, 어릿광대 1명, 의원 1명, 여종 2명, 남종 2명, 용기잡이 1명, 상쇠 1명, 부쇠 1명, 징 1명, 북 1명, 재파리 1명, 장고 1명, 소고 1명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 (3) 거북놀이 연희 내용

### ① 길놀이

마을 어귀나 공터에서 놀이대가 길놀이를 시작한다. 놀이대는 길가락(종다가락)에 맞춰 정해놓은 집으로 이동한다.

### ② 문굿

정해놓은 집에 도착하면, 농악대는 오방진 앞가락의 변형 가락을 치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멈추고 문굿을 한다. 질라아비는, “천석거북이 들어갑니다. 만석거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니, 이 댁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거북이를 앞세우고 놀이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어 용기, 농기, 영기가 뒤따른다.

### ③ 샘굿(용왕굿)

놀이대는 샘 주위에 둘러서, 농악대의 친체가락 → 유판가락 → 다드래기 가락 → 휘몰이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범주하고 샘굿을 한다. 질라아비는 “용왕님 용왕님 사해용왕님, 농해용왕 광연왕, 남해용왕 광녀왕, 서해용왕 광진왕, 북해용왕 광태왕. 이 택에 샘물이 활활 솟게 하여 주소서. 동에는 청연수, 남에는 정연수, 서에는 백연수, 북에는 흑연수, 중앙에 황연수 모아다가 이 택 가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 물로 밥을 지어 삽수시면 일년 원두 달 과년 열식 달 삼백육십오일 내내 갈지라도, 군심걱정 무안질병 삼재팔난 하나 없이 천시 전지하여 주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질라아비의 덕담이 끝나면, 상쇠가 팽과리풀을 치며 “뚫어라 뚫어라 불구명반 뚫어라”고 한다. 이를 농악대가 후창한다.

### ④ 터주굿

놀이대는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로 이동하여 농악대의 사진보리가락과 휘몰이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범주하고 터주굿을 한다. 질라아비는, “밥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소를 먹이면 억대우가 되고, 닭을 먹이면 봉황이 되고, 개를 먹이면 마구할미 청삼사리 네눈박이가 되고, 이 집 문간 중방에 턱을 걸고 오시는 손님 받아들이고, 킁킁 짓는 소리, 이 군방 만금복록 이 택으로 무럭무럭 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 ⑤ 조왕굿

놀이대는 부엌으로 이동한다. 질라아비는 부엌 문턱에서 거북이에게 큰 절을 시킨다. 농악대는 사진보리가락과 휘몰리가락을 치다가 멈춘다. 질라아비는, “조왕님 조왕님 삼만육천 성주대신 팔만사천 제대조왕 삼불제석 산신님네 산신국사 토지사신 조상부모 혼령님네 조왕님 조왕님 검은 솔에

화식 익혀 먹을 때도 아무 거침없이 수복다님 부귀영화 누리게 하소서” 하며 덕담을 한다.

#### ⑥ 마당놀이

농악대는 좋다가락, 오방진가락, 칠채가락, 육채가락으로 흥을 놀운다. 다드래기기락과 훠몰이기락으로 놀이판의 흥을 절정으로 이끈다. 이때 거북이가 마당을 돌며 놀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질라아비는 거북이가 쓰러졌다고 소리친다. 놀이대는 거북이 주위로 모여든다. 질라아비는 “이 거북이가 동해바다를 건너서 이 산골까지 오느라 과로해서 병이 났나보구나” 하며 종을 시켜 의원을 불러오게 한다. 의원은 거북이를 진찰하고, “병이 너무 깊게 들었습니다” 하며 손을 떼려 한다. 질라아비는 의원이 손을 떼지 못하도록 집주인에게 음식과 술을 내오라고 한다. 집주인은 추석명절에 준비한 음식을 푸짐하게 내어놓는다. 놀이대는 음식을 먹고 한바탕 질편하게 논다. 질라아비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냥 거북아 놀아라. 만냥 거북아 놀아라. 즐겁게 받으시고, 마음갑개 받으시고, 형그볍게 받으시고. 거북아 거북아 실컨 놀아보자. 재주대로 놀아보자. 형그럽게 놀아보자. 천금 만냥 벌어주소. 우리 거북님 벌어주소. 모두가 거북님 덕택일세. 지성이면 간친일세. 거북님의 덕택일세. 나라님의 만수무강. 백성들의 반사태평, 이 택에는 여의대통. 거북님아 거북님아 벌어주소” 하며 덕담을 한다. 놀이대는 다시 한바탕 질편하게 논다.

### □ 소 리

〈거북이 노래〉는 1976년에 음성군 금왕읍 금석 2리에 거주하던 이해룡(당시 64세)으로부터 채록한 자료이다.

### ● 거북이 노래

거북아기북아 높으라 천년거북아 높으라  
형향그렵게 높아라 기분이좋게 노르라  
팔월한가위 너르로섯는 거북이한쌍우 드려노니 거북이귀히 높아불제  
머리개실 자라시고 꼬리를 톡탁치면서  
먹을전 높아불어주구 입을전 높아불어주구  
먹구나랑께나 접지하구 입구나랑께 즐거할제  
이축원이발원 드릴적에 거북이신령이 없을리까  
천년기북아 높아보아라 만년거북아 높아보아라  
활바하기를 누르익지 기분좋게 내리사구 기분좋게 반으사구  
우리기북이 한쌍이내려와서 다시한번 둘러보고!  
이터전으로 들어와서 사명당으로 암장하고  
안개작자나 좌기나안정허리께  
송편공양을 받으실제 반갑게 각계즐짓게 나나받으리오  
거북이에 축원을드릴제는 어제는 다섯가지온해요  
나관님전에 충성하고! 부모님전에 충성하고오  
동기부모님전에 효성하고 동기나간에 우애하고  
내우나간에 금심종고요 일가나친척 화복하고 친구나벗님 유정터니  
거북이타령을 불러볼세 거북아거북아 너~말해  
천년거북아 높아보자 만년거북아 높아라  
이사상에 태인인간털 살피시구 굽으시구  
거북이신령이 없으리까 입힌티도라 만사오니 새루나덕을 입혀주소  
천하지대본은 동사나바끼 또있는가  
집풀데는 논을치구 높은데는 밭을쳐서  
오곡백화 씨를뿌려 오~갱이 양겨주고 사해용앵이 물을주고  
무수곡석을 심었던가 산골로들어 산다닥 들러나들어 들청비

새누가나온 시연비 칠십팔십에 노인배 연년충신에 효도배  
기운요분에 팔다리 이룹좋흔에 십삼이 겪꺼너푸느덩 쟁끼찰  
안성육인에 양푼찰 흐자먹는에 대시찰 알록달록 따뜨리차  
으슴양식에 별덕찰 욕심많을제 쪽제비찰  
여기나저기 심어놓고 적꼭갓절 심얼적엘  
봄에 나간다라 봄보리 갈에 나간다라 갈보리  
용모보리 쌀보리 안질뱅이나 키다리 오목조복에 갯뚱주  
질꺼리나 사별주 수수먼동에 적도파 일꽁청둥 청대콩  
방정맞다라 춘연이콩 말기나대국에 강낭콩 독수공방에 홀애비콩  
흑두적도동년 고추참깨들깨 여기저기 심었는데 편지청천에 대보래콩  
한국단풍에 들어오니 억조장생 농민털아 천마대번에 헤을쓸제  
이때까중에 문을손가 일매나같은 일꾼들 무드렁낫열 써썩갈아서  
이리비나루 저리놓고 불매나같은 일꾼들 지게마치 쳐드리고  
앵두나같은 종털언 딸이나바쳐 여드리고  
두걱뿌리 자각뿌리 천지각이나 쌍족발이나동경수  
나갈제 빙다리요 들었을게 찬발이라아  
우곡저곡 쓸어들여 묵구낭께나 점지하고 애꾸자남께 접지하고  
에~야 노적딘노적 명에나노적 참깨노적 담얼단일 쌍아놓으니  
남데나없는 봉백산으로 활얼날이들어 사랑봉에 터를닦고  
증봉에는 기를들어 한나중봉개는 기를들어  
한날개 톡탁치면 일만석이 쏟아지고  
또한날개가 톡탁치면 옥동같은 비는자손 칠팔형제 접지한다  
부귀공병에 접지할제 황금으로 담을쌓고 불명절으나 울대메고  
술러는 모욕하고 고기로 양체하야 이과소지 황금출이네  
지침개문에 만복래라 소원성취 발원할제  
당상각발 양친부모 오동나무가 상낭가지 봉황같이 접지하고

없는애기는 생남아를 있는애기는 수명장수  
진명언 설여담구 짜믄에명언 이서닭어  
서중에도 복을빌고 강태공에도 나이빌어  
상팔재 흑팔재 예백예순 점지기를 제석님에 덕택이요  
제삼신이 내덕택이요 제석님과 삼신님은  
예명땅으로 나리시고 소망성취를 이루소사

### ● 거북이 노래

거북아거북아 놀아봐라  
천년거북아 놀아봐라  
반년거북아 놀아봐라  
팔월한가운날에 송편을 빚어놓니  
에문전에 가서 거북타령을 헐적에  
애레놀구 저리나놀구  
기분좋게 놀으소사  
기북이야 발을 잡들으쇼

## 5

# 진천 민속놀이

### 1) 집터다지기

집터다지기는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6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덕산농악대

#### □ 해 설

집터다지기는 집터를 다지고 집을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일하고, 또 축하하는 공동작업이자 민속놀이이다. 낮에는 가래질로 집터를 보으고, 저녁에는 지더미돌로 집터를 다진다. 이때 ‘가래질소리’와 ‘지더미 소리’가 일의 진행을 돋는다.

#### □ 구 성

집터다지기는 입장, 가래질(가래질소리), 지더미(지더미소리)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은 농악 15명(상쇠 1명, 부쇠 1명, 징 3명, 북 4명, 장구 4명, 깃대잡이 2명, 가래질꾼 30명(장치꾼 6명, 줄꾼 24명), 지더미꾼 20명(횃불 6명, 줄꾼 14명) 등 60여 명이다. 가래질꾼이 지더미꾼을 겹하

기도 한다. 집터를 다진 때에는 ‘오목가래’를 사용한다. 장치꾼 1명, 줄꾼 (앞줄, 뒷줄) 4명이 필요하다. 지더미는 밖에 행하는데 광솔불로 주변을 밝혀 일을 진행한다.

## □ 소리

### ● 가래질소리

이집터를 모을적에 가래질로 집터를 보으고~ 어하딩실 가래요  
경복궁을 지을때도 가래질로 집터를 모으고~ 어하딩실 가래요  
법주사를 지을때도 가래질로 집터를 모으고~ 어하딩실 가래요  
(후략)

### ● 지더미소리

합박산주렴이 뚫떨어져서~ 어허지더미호  
이집터를 마련하고~ 어허지더미호  
이집터를 마련한제~ 어허지더미호  
도선대사가 집터를 잡고~ 어허지더미호  
무학대사가 좌향을 놓으니~ 어허지더미호  
천하의명당은 여기로구나~ 어허지더미호  
좌청룡이 잘되었으니~ 어허지더미호  
아들자식이 잘될것이요~ 어허지더미호  
우백호가 잘되었으니~ 어허지더미호  
딸자식이 잘될것이라~ 어허지더미호

# 괴산 민속놀이

## 1) 상여놀이

상여놀이는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김민태가 소리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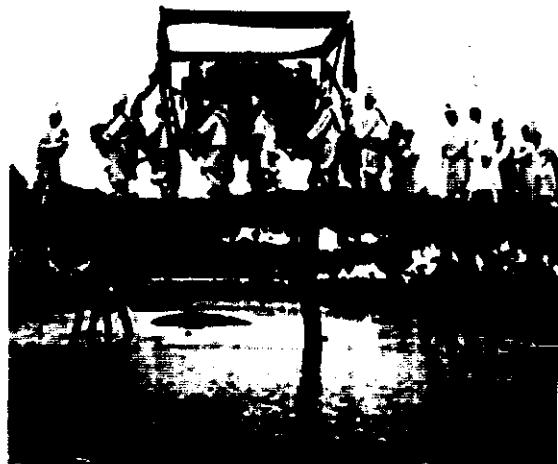
출연 : 괴산민속팀

### □ 해 설

상여놀이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어린 6남매를 남겨두고 별세하여, 상주뿐만 아니라 온 부락 민들이 슬픔에 잠겨 상여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재현한 작품이다.

### □ 구 성

상여놀이는 출상, 상여놀이,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상여놀이 – 외나무다리 건너기

### (1) 출상

상여꾼들이 상여 옆에 모열한다.  
선소리꾼이 상여 주위를 둘러 '요령  
잡아소리'를 부르면, 상여꾼들은 상  
여를 매고 일어선다. 농악대 악사는  
'향토가'를 부르며 상여의 선두를 이  
끌고 집을 나선다.



상여놀이 선소리꾼 – 노영길

### (2) 상여놀이

악사, 방상씨, 명장, 반장, 지전,  
공포, 불삽, 초연, 흔백, 상여, 운삽, 상주, 복재기, 조개 등의 순으로 대열  
을 이루며 길을 나선다. 이때 특유의 선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상여를 뒤로  
밀듯 앞으로 나간다.

### (3) 외나무다리 건너기

상여 앞에 개천이 나오면 물속에 농발을 박고 통나무 2~3개를 한데 묶  
어 밭판을 만든다. 그리고 밭판 위에 뗏장을 엎어 외나무다리를 만든다. 상  
여꾼들은 V자 형태를 유지하며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 2) 지경다지기

지경다지는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3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괴산민속팀

## □ 해 설

지경다지기는 새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다지는 공동작업을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협동노동으로써 재앙을 쫓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괴산군에서는 지경다지기와 관련해서 ‘가래질소리’, ‘복도소리’, ‘지경다지기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 □ 구 성

지경다지기는 토지지신 제사, 설계, 가래질, 놀운반, 지경다지기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토지지신에게 이곳에 집터를 닦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한다. 여러 명이 작대기로 주춧돌 자리를 다지고, 집의 면적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아 지경 다질 준비를 한다. 가래질이 끝나고 지경을 다지기 위해 지경석을 네 명이 목도에 메어 짊어지고 복도소리에 맞춰 지경석을 집터로 옮긴다. 선소리꾼이 소리를 메기면 지경석을 짊어진 목도꾼이 뒷소리를 받아 발을 맞춰 집터 중앙으로 지경석을 옮긴다. 이어 지경줄을 맨다. 지경줄은 열두 명이 둘 수 있도록 매며, 12시간의 방향으로 늘어서 지경 다질 준비를 한다.

## □ 소 리

### ● 토지지신

병순년을 맞이하여 자좌오향에 집을 지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축원하나이다

### ● 가래질소리

대명당에 집을지니 우리모두 합심하여~ 에라 청청 가래호  
높은곳을 가래질해 낮은곳을 잘매우세~ 에라 청청 가래호  
이집지어 자손만대 영화누려 잘살겠네~ 에라 청청 가래호  
성인군자 날터이니 우리모두 기원하세~ 에라 청청 가래호  
삼정승에 육관서가 이자리서 나온다네~ 에라 청청 가래호  
어지간히 끌렸으니 쉬었다가 다시하세~ 에라 청청 가래호  
지경돌로 다질테니 판판하게 잡고르세~ 에라 청청 가래호  
이집터가 명당이니 우리마을 흐뭇하네~ 에라 청청 가래호  
가래질은 그만하고 지경돌로 다져보세~ 에라 청청 가래호

### ● 목도소리

(매기는 소리) 차정~ 허어 에에이

(받는 소리) 차정~ 허어 에에이

허제~ 해야~ / 허제~ 해야~ 허야 허차

허제~ 해야~ 허야 허차 / 허제~ 해야~ 허야 허차

허어 으야 으으 허야 / 허어 으야 으으 허야

허어 으야 으으 허야 / 허제~ 허 잘 한나 허제~

허제~ 허자 어기 허차 / 허제~ 허자 어기 허차

허제~ 허자 어기 허차 / 허제~ 허제 어기 허차

허제~ 허자 여기 허차 / 허제~ 허자 여기 허차  
허제~ 허제 여기 허차 / 허제~ 허기 이차 어 놓고~

### ● 지경다지기 소리

애해에~ 지데미호 천개의자 생천이요  
지벽이 조축땅 생길재 음과양의 조화로나  
남섬부주 내달아서 해동제일 대한민국  
백두산에 서린정기 태백산을 건너뛰어 소백산에 서렸구나  
군자산이 주산이요 오봉산이 안산되고 좌청룡에 우백호라  
동진강으로 수구막고 괴강으로 둘러치니 대명당이 예로부터나  
학의등에 터를닦고 지경소리나 윤려보세  
천근바위를 지어나가 십이지간 동아줄을 휘휘칭칭 잡아매어  
대길입을 택하여서 지경다지를 하여보세  
먼데사람은 듣기도록 균동사람은 보기도 좋게  
높이높이 들었다가 쿵쿵쿵쿵 다져를보세 보기도 좋게 다져를보세  
이진한채를 잘지어서 자손만대 부귀영화 세세연년 만복이라  
애해에 지데미호

### 1) 밀양북놀이

밀양북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2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용강농악대

### □ 해 설

북놀이는 산대놀이 따위에서 북을 배고 나와 벌이는 민속놀이를 말한다. 밀양북놀이는 밀양백중놀이에서 연행되는 북놀이다. 밀양북놀이는 '외북춤' 이외, 북잡이 다섯 명이 합주하는 '오북춤'이 특징이다. 오북춤은 다섯 명의 북잡이가 원형을 이루어 춤을 추는데, 큰 보폭과 대담한 동작을 선보이는 난성적인 춤이다. 오행(五行)과 오기(五氣)가 순조롭고, 오체(五體)가 경건하며 오곡(五穀)이 풍성해 오복(五福)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북춤을 춤 때에는 맨발에 흰 바지지고리를 입는데, 바지를 끄는 끝까지 깊어 부치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다. 악기는 타악기들로 꽹과리, 징, 장고, 북, 물장고, 사장고, 나발 등을 사용한다.



## 청주 민속놀이

### 1) 소래울장치기

소래울장치기는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130명의 대단위 인원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소래울민속놀이팀

#### □ 해 설



봉치기 하는 장면

소래울은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의 옛 지명으로, '큰 소래울'과 '작은 소래울'이라는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래울장치기는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행했던 청·장년층의 유희적 민속놀이이다. 풍농을 기원하고 부락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 ▣ 구 성

나무 채는 1m 가량의 단단한 나무 끝을 구부러트려 공을 치기 편하게 만든다. 공은 소나무의 용이가 있는 부분이나 고양나무, 박달나무 같이 굳은 나무를 둑글게 깎아 만든다. 길이 40~50m, 너비 30~40m 정도의 장소에 가운데에는 공이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판다. 놀이는 두 편으로 갈라 하되, 한 편을 10명 정도로 구성한다. 사방에 네모 구역을 만들고 가운데에 중앙선을 정한다. 공채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끌라인을 많이 넘기는 편이 이긴다. 놀이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아래짱'으로, 구멍에 공을 놓고 양편이 동시에 시작하는 방식이다. 둘째, '웃짱'으로 공을 제3자가 위로 똑바로 던진 다음 떨어지는 공을 서로 쳐서 시작하는 방식이다. 셋째, '소래기'로 이긴 편이 공을 위로 던지면 양편이 한 바퀴 돌면서 떨어지는 공을 쳐서 시작하는 방식이다. 놀이 방식에 따라 격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 방식은 동일하다. 놀이에는 반칙과 벌칙이 주어진다. 반칙은 공이 봄의 일부에 닿는 것, 상대편의 공채를 봄으로 막는 것, 상대편의 봄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것, 상대편의 경기활동을 봄으로 막는 것, 공을 격장의 선 밖으로 쳐내는 것, 공을 횡선 밖으로 쳐내는 것 등이다. 벌칙은 봄을 한 바퀴 돌려서 공을 치는 물레공, 공을 굽여주는 굴리공, 구멍공치기 등이 있다.

# 청원 민속놀이

## 1) 길쌈놀이

길쌈놀이는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6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화당길쌈놀이팀

### □ 해 설

길쌈놀이는 7~8월에 부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두레길쌈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보시두레’, ‘돌개쌈’이라고도 한다. 여름 밤에 한곳에 모여 두레길쌈을 하는데, 이때 우스갯소리도 하고 옛날이야기 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의 단조로움과 고달픔을 더는 것이다. 특히 8월 보름, 추석날밤에는 그 동안 노고를 털어버리기 위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가루로써 한껏 즐긴다.

### □ 구 성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에서 전승되었던 길쌈놀이를 씨앗질 → 활질 → 고 치밀기 → 물레질 → 씨날매기 → 배짜기 등 농화로부터 무생을 짜기까지

인체의 과정으로 재연하고 있다.

## 2) 부강호상놀이

부강호상놀이는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최명옥이 잡색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화당길쌈놀이팀

### □ 해 설

부강호상놀이는 밤이 하기 전날 저녁에 상여꾼들이 빈 상어를 메고 선소 놀이꾼의 상여소리에 밤을 맞춰 보는 민속놀이이다.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서 호상일 경우 상여꾼들이 빈 상어를 메고 인근에 있는 망자와 가까운 친지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이때 재간꾼이 상여 위에 올라 상제와 같이 꽂아주는 시늉을 하며 놀들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흔히 '대도놈'이라고 한다.

## 3) 수살제마당놀이

수살제마당놀이는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4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청원수살 제라는 명칭으로 37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청원민속팀

## □ 해 설

수살제마당놀이는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하촌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신제와 수살제를 공연화한 작품이다. 삼항리 하촌마을 산신제와 수살제의 일시는 정월 14일 자시로 고정하고 있다. 정월 초에 한 해 부정 여부 및 생기복녀 합당 여부를 가려 세 명의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대문에 금줄을 치고 매일 복욕제례하는 등 삼일금기를 준수한다. 산신제 제당은 마을 뒷산 참나무 숲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2m 가량의 바위이며, 그 앞에는 자연석 제단이 있다. 수살제 제당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두 기의 선돌로 동쪽의 것을 친하대장군, 서쪽의 것을 지하대장군이라고 부른다. 친하대장군은 높이 0.7m 폭 0.5m 두께 0.3m이며, 지하여장군은 높이 1.2m 폭 0.4m 두께 0.3m이다. 산신제는 자시를 전후하여 3명의 제관이 주재한다. 제불로서 삼색실과, 백설기(3되 3홉), 명태포, 메밀북, 메, 술 등을 진설한다. 술은 제장에서 직접 빚는데, 이를 ‘조라술’이라고 한다. 제의는 분향, 초현, 독축, 아현, 종현, 소지 등 유교식 절차를 쫓아 진행한다. 산신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수살제를 지낸다. 제물로 돼지머리, 메밀 1그릇을 진설한다. 제의는 산신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 누구나 소지를 올린다. 이후 풍물을 올리며 읊복한다.

## □ 구 성

풍물패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수살제의 시작을 알린다. 세 명의 제관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풍물패 및 마을 사람들이 따른다. 우선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올린다. 산신제가 끝나면 풍물패가 앞서 풍물을 치고, 그 뒤를 제관이 따르면서 곳곳에 황토를 뿌린다. 이렇게 출연진이 수살제 위치로 이

동한다. 산신제와 같은 방식으로 수살제를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읊복하고 풍물과 더불어 한바탕 놀다.

#### 4) 현동시동물다르기

현동시동물다르기는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도 4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청원민속팀

#### □ 해 설

현동시동물다르기는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물기위제이다. 시동리 사람들은 마을공동우물의 시원이 고람산 열활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열활샘은 고람산의 열고개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웅달샘으로 가끔과 한밤에도 절대 바르지 않는다. 농번기가 본격화되는 4~5월에 풍장패를 위시한 마을 사람들이 고람산에 올라 산신제를 지낸다. 이후 열활샘으로 이동하여 아낙네들이 호리병이



현동시동물다르기

나 물농이에 물을 기른다. 호미병이나 물동이의 주동이를 솔잎으로 틀어막고, 고람산으로 다시 올과 그곳에서부터 한 방울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며 마을공동우물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다다다 남은 물은 마을공동우물에 쏟아붓는다. 이어 우물고사를 지낸 후 풍장을 읊어며 신명나게 놀다.

## □ 구 성

현동시동물다르기는 현장에서의 전승 양상 그대로 고람산 오르기 → 산 신제 → 열꼴샘 물담기 → 고람산 오르기 → 물다르기 → 마을우물에 물붓기 → 우물고사 → 신명풀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5) 호미씻기놀이

호미씻기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46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장재농악대

## □ 해 설

호미씻기놀이는 청원군 북이면 장재1리에서 전승되었던 호미씻기 농악을 재현한 민속놀이이다. 청원군 북이면 장재1리 농악대는 1964년에 35명으로 창단되었다. 농악대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을 기해 각 가정을 돌며 자신을 밟았으며, 백종을 기해 호미씻기 농악을 벌였다. 이를 상쇠 서병진을 비롯한 46명이 재연하고 있다

### 1) 기세배

기세배는 1998년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보은민속팀

#### □ 해 설

보은군 북식은 본디 산내면 지역이었던 보은읍 종곡리, 성죽리, 누정리, 강신리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누밑, 강청이, 외뿔, 동메, 농편, 삼성골, 보종골, 나라니, 소라리, 배니, 안양, 세말 등 열두 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두 개 부락은 경주 김씨의 대표적인 침성촌이며, 매년 7월 20일을 전후해서 호부시(호미씻이)를 벌었다. 이때 열두 개 부락이 모여 풍물을 치고 기세배를 하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잠시 잊었다. 각 부락마다 용기를 들고, 두레풀들이 형성된 순서에 의해 정한 형제의 서열에 따라 용기를 수그려 선을 했다. 평소에도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형 마을의 농기가 들판을 지날 때면, 일손을 멈추고 황급히 뛰어나와 세워 놓았던 농기를 세 번 흔들며 절을 했다. 행렬을 멈추고 기다렸던 형 마을 기는 정중히 답례하고 산책 천을 답례로 선물했다. 이 예를 행하지 않으면 형 마을의 풍물패가 기복을 뽑아 자기 것대에 거꾸로 배다는 형벌을 가했다. 북신 기세배는 1950년대 초반까지 전승되었다.

## □ 구 성

각 부락의 풍물패가 풍물을 치며 마을 앞 강변으로 집결한다. 먼저 맘형기가 풍물을 뽑내고 자리를 마련한다. 둘째 나을기는 만형기 앞으로 이동하여 영기로 인사할 것을 고한 다음, 영기를 낮게 세 번 쓸고 한 번 숙여 절을 한다. 맘형기는 살짝 숙이는 것으로 답례를 한다. 절이 끝나면 둘째 마을기는 만형기 원편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세배를 계속 진행한다. 기세배가 끝나면 농기를 차례로 세워놓고 각 풍물패와 주민이 한데 어울려 대동판을 마련하고 놀음놀이를 한다.

## 2) 물다르기

물다르기는 1997년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보은민속팀

## □ 해 설

보은군 산외면 백석 1리(일명 흰돌부락)에는 두 개의 큰 샘이 있다. 샘의 수원이 뒷산 유방혈의 두 절무덤이기 때문에, 흰돌부락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이 샘의 석천수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 샘은 물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하여 300여 년이 넘도록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웃마을의 시샘을 받아 왔다. 실제로 50년 전만 해도, 정월이 되면 장간 2리(일명 나백이부락)에서 물의 균원을 뺏으려 했다. 이를

흔히 물다르기(충청도 방언 : 물 빼앗기)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일종의 민속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 □ 구 성

물다르기는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보은흰돌) 물다리 기놀이'로 출연하여 단체 부문에서 국부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출연한 작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출연 부락 및 인원 구성

- ① 보은군 산외면 백석 1구 주민 45명 : 농악대 12명, 양병꾼 10명, 놀이 패 23명
- ② 보은군 산외면 장갑 2구 주민 45명 : 농악대 12명, 양병꾼 10명, 놀이 패 23명

### (2) 내용 구성

- ① 두 부락(흰돌부락, 나백이부락)의 농악대 24명이 농악을 치며 입장한다. 뒤를 따라 양병꾼 20명, 놀이패 40여 명이 춤을 추며 입장한다.
- ② 인사를 하고 두 부락으로 나누어 징련한다. 흰돌부락은 두 개의 샘 종에서 아랫말 샘부터 샘고사를 올리고, 나백이부락은 산제를 올린다.
- ③ 나백이부락은 자기네 마을의 우물이 마른 것을 알고 흰돌부락으로 불을 다리려 간다.
- ④ 흰돌부락에서 아랫말 샘고사에 이어 웃말 샘고사를 올리고 있는 틈을 타, 나백이부락의 청년 왜병꾼(양병:주둥이가 좁고 배가 불룩한 젊은)

릇병, 일병 오시병)과 놀이패는 왕병을 지고, 메고 뒷산을 넘어가 흰 돌부락의 물을 몰래 퍼 담아 왕병에 솔까지를 박고 출출 흘리며 불의 균원을 빼앗아 온다.

- ⑤ 나백이부락의 청년 왕병꾼은 나백이부락 농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물을 다려 왔나”고 외친 후 흰돌부락에서 물을 퍼 담아 온 물을 자기네 샘 물에 쏟아 붓는다.
- ⑥ 물을 다려 온 나백이부락 사람들은 농악으로 축제를 펼친다.
- ⑦ 흰돌부락에서도 나백이부락에서 축제를 벌치는 동안, 양병꾼과 놀이 패를 보내어 물을 되찾아 오도록 한다. 흰돌부락의 청년 왕병꾼은 “물을 다려 간다”고 외치며 나백이부락으로 향한다.
- ⑧ 물을 되빼앗긴 나백이부락의 양병꾼과 놀이패가 흰돌부락으로 다시 물을 다리러 간다. 농악대가 한데 어울려 두 부락이 싸움을 벌인다.
- ⑨ 물을 되빼앗긴 흰돌부락은 온갖 연장을 동원하여 나백이부락으로 간 물줄기를 되돌려 놓는다.
- ⑩ 두 부락의 학성과 축제 속에 농기가 앞서 서로 화해하고 전체가 어울려 한바탕 놀이를 벌이다가 퇴장한다.

### 3) 송이놀이

송이놀이는 2001년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김영래가 연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속리산 송이놀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5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보은민속팀

## □ 해 설

속리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신라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행제(國行祭)를 지냈다. 그리고 산중 사람들은 매년 10월 범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속리산 산신을 맞이하여 천왕굿을 올렸다. 이때 산신에게 공물로 남근을 바치고 축제를 벌였다. 산신에게 남근을 바치는 것은 보방주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술은 상징적 의미에서 소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생산의 신성이 있는 여신에게 성력이 있는 남근을 바침으로써 신성혼인에 의한 효과적인 생산 혹은 풍요를 기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따라서 속리산 산신제에서 남근을 바쳤다는 것은 바로 속리산 산신을 여신으로 이해한 것이며, 또한 속리산 산중 사람들이 속리산 여신에게 남근을 바친 것은 효과적인 생산 내지는 풍요를 기대하는 주술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이는 승려들이 쓰는 남근의 은어이므로, 송이놀이는 '남근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근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속리산 승려들은 속리산 산신을 부처가 성도할 때 방해한 욕계마왕으로 인식하여 속리산 산신을 유토이기 위해 산신제의 마지막 날에 남근공이를 변형하여 놀이했다.



송이놀이 – 입장굿



송이놀이 – 사또입장



송이놀이 1



송이놀이 2

## □ 구 성

송이놀이는 사또행차, 물건(송이)찾기, 오방기놀이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물은 친설하고, 산신제와 모당굿을 펼친 후 신분에 맞는 의상을 갖춘 현감, 이방, 포졸 등이 자리 잡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송이 찾기를 전개한다. 출연진은 기수 2명, 쇠 3명, 징 2명, 바라 1명, 장고5명, 북 4명, 소고 4명, 사또 1명, 이방 1명, 관속 6명, 포졸 7명, 무당 3명, 양반 3명, 니털방아 3명, 절구 4명, 다듬이 2명, 맷돌 2명, 약초꾼 5명, 키질 4명, 도리깨 4명, 양반댁 아낙 1명, 무농 2명 등이다.

### (1) 모임굿

이채가락으로 흥을 돋우며 출발 준비를 한다. 출연진은 각자 공물로 바침 송이를 소지한다.

### (2) 입장

길거리장단(침채변형가락)에 맞추어 기수, 풍불패, 사또, 관속, 주민들 순으로 입장한다. 제사상 앞에서 원진을 그린다. 원진이 완료되면 가락을 3채가락(자진모리)으로 바꾸어 돌며, 양반과 주민들은 안으로 원진을 그린다. 기수를 중심으로 사또와 관속들은 가운데 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정한다.

### (3) 무당굿

풍불패의 자진가락에 맞추어 세 명의 무당이 무당굿을 준비한다. 큰무당의 가락에 맞추어 작은 무당들이 춤을 춘다. 곧 산신제의 축워굿을 시작한다. 무당춤이 점점 빠르고 힘차게 진행되면 주민들은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기원한다. 무당춤이 절정에 이르면 큰무당은 가락을 바꿔 사설을 시작한다. 주민들은 준비한 남근 모형의 송이를 제단 위에 바친다. 나머지 주민들과 풍물꾼은 계속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기원한다. 주민대표가 가장 큰 공물을 바치면 큰무당이 사설을 마친다. 풍물패는 자진가락으로 주민들 사

이에서 달팽이진을 그린다. 주민들은 각자 위치에서 절구질, 방아질, 맷돌, 타작 등을 하고, 약초꾼은 춤을 추며 논다. 이때 사또, 관속, 포졸 등이 풍물패 소고 끝을 따라 돌다가 판굿이 끝나갈 무렵에 사또가 사인교에 앉아 행차 준비를 한다.

#### (4) 사또 입장

풍물패와 주민들이 흥겹게 노는 사이에 사또 행렬이 입장한다. 이방의 “물렀거라 사또마님 행차시다”하는 소리에 판굿을 멈춘다. 포졸들이 재차 “사또마님 행차시다”하고 하면, 주민들은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풍물꾼은 북을 올리면서 뒤로 물러난다. 사또가 입장할 때, 기수들은 가운데를 향해 45도 기울여 예의를 표한다. 사또는 판의 중앙에 좌정하고, 육방관속은 2열종대로 벌려서고, 포졸은 사또 뒤에 섣다. 풍물패는 사또 뒤에서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서서 장단을 맞춘다.

#### (5) 송이놀이

대본에 따라 송이놀이를 한다.

#### (6) 북춤

송이놀이가 끝나면, 육방관속은 송이를 베고 사또를 따라 원진을 그린다. 그 뒤를 주민들이 따라 가며 원을 그린다. 풍물패는 송이와 같은 방향으로 원진을 그리다가, 안으로 반대 원을 그리면서 북춤 준비를 한다. 북춤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원을 만든 후 을자진을 이용해 남근 및 사또, 관속들을 가운데로 몰아 원진을 그리다. 판 중앙에 위치한 남근의 귀두에 사또가 오방색 천을 매단다. 무당의 간단한 의식에 의해 송이를 천천히 세운다.

#### (7) 방아찧기

자진가락에 맞춰 오방색 척을 향해 주민들이 춤을 춘다. 이어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방아찧기를 한다. 3채 한 가락으로 들어가 한 가락 놀고, 3채 한 가락으로 놀며 나온다. 자진가락으로 모든 출연진이 춤을 춘다. 이어 송이를 보관한 뒷간으로 향한다. 뒷간 옆에 송이를 세워놓고 모든 출연진이 한바탕 노는 후에 천천히 퇴장한다.

## □ 소리[물건(송이)찾기 대본]

현감 : 여봐과! 이방~

이방 : 예~ 이 (허리를 굽히며 목소리를 끌어올린다)

현감 : (앉아서 무게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곳 속리산에 와 보니 산수가 수려하고 들판 대로 천하제일 명산이로구나! 예로부터 이곳 속리산에는 굽직굽직한 송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다. 대부분 마님께 갖다드릴 물건이니 어서 가서 아주 크고 쓸 만한 물건하나 구해오너라.

이방 : (낮은 소리로) 예~

### 행진가락

이방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찾아다니다가 넷돌 손잡이반한 것을 찾아온다.

이방 : 사~또!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현감 : (허리를 굽혀 보고, 기가 차다는 듯) 예끼! 이 놈아! 그것도 물건이란 말이냐? 어떻게 너는 생긴 것처럼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느냐? 씩 나가서 더 큰 것을 구해 오너라.

이방 : (놀라 어쩔 줄 모르며) 예~

관아 유행관속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밖으로 나가 다른이 방방이  
를 들고 들어와 현 갑에게 보인다.

이방 : 사또! 여기 대령 하였사옵니다. 이만하면 쓸만 하온지요?

현갑 : (일어서서 다가와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기가 막히는구나! 그  
걸 어디다 쓰라는 것이냐? 망망대해 일엽편주, 아니 송사리 같을  
이걸 불길이라고 가져 왔느냐? (휙 집어던진다)

이방 : (뒤진 물건을 다시 집어들고) 아이구, 사또~ 이것도 작단 말입니  
까?

현갑 :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연못에 송사리 한 마리가 노닌다고 파도  
가 아는 것을 보았느냐? 이놈아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이방 : (한참을 푸념한 후에 물건을 들고) 어~ 허, 대부인마님 취미도 참  
고상 하시네. 아 이보다 더 큰 물건을 구해다 무엇에 쓰려는 것인  
지 원. (포졸들을 가리키며) 좀 찾아보게나.

풍물가락에 맞춰 송이를 찾아다닌다.

이방 절구광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다가가 포졸을 감싸안는다.

이방 : 사또~ 여기 솔 만한 물건을 구해 왔습니다.

현갑 : (앉은 상태로 혀리를 긁혀 보다가)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 : (웃으면서) 대부인 마님께 바친 복건이옵니다.

현갑 : (화가나 화 돌아앉으며) 어립없다.

이방 : 어립없으시다니요?

현갑 : 이놈아! 그것으로는 마님 귀후비개도 못되겠다.

이방 : 예? 이것이 작단 말씀입니까?

현갑 : 잔발 맑고 어서 가서 더 큰 것을 구해 오너라.

이방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아전들은 재미있어 야단을 한다. 이방은 아전들에게 눈을 훌기다가 포졸1을 오라고 한다. 이어 의기양양하게 방아공이를 들고 들어온다.

이방 : 사또~ 드디어 구했습니다.

현감 : (옆으로 돌아앉았다가 바로 앉으면서) 어디보자~ (실망한 표정으로) 아니, 이 동네는 그렇게도 쓸 만한 물건이 없단 말이냐?

이방 : 사또! 이것도 안 된단 말씀이시오?

현감 : 어쩔없다. 어서 가서 더 크고 굵은 것을 구해오너라.

이방 : 얼마나 커야 하는지요?

현감 : (팔뚝을 걷어 보았다가 다시 바지가랭이를 걷어 보고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은지, 양손으로 발끝부터 온몸을 훑으며) 이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 : (깜짝 놀라 넘어졌다 일어서며) 아니~~~ 사또! (원망스럽게) 그렇게 큰 물건이 있을는지요?

현감 : 대부분 마님이 한 번에 만족하여야 하느니라!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가서 구해 오너라, 이놈아!

이방 : 예.

황급히 나가서는 관중들에게 하소연을 한다.

이방 :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내노라는 물건은 다 갖다 보여 드려도 안 된다 하시니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누구 좋은 물건 있는 곳 아는 분 없소? (사람들의 사타구니를 훔치는 시늉을 한다) 좋은 물건 있는 사람 있으면 잠시 빌려라도 주시오. 이 끄다간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소이다. 내 평생 이렇게 큰 물건

이 필요하다는 말은 보도듣도 못했소.

이방이 이 사람 저사람 닥치는 대로 불들고 하소연을 하자, 관중들이 '절구공이를 구해가면 어떻겠느냐'고 일러준다. 이방은 좋은 생각이라는 듯 얼른 포졸1과 2를 데리고 가서는 절구공이로 만든 남근을 들고 사또 앞으로 등장한다.

이방 : 사~또~ (오두방정을 떨며 자신만만하게) 드 드 드니어 제대로 된 물건 구해왔습니다. 어디 한 번 보시지요.

현감 : 그래 어디보자. (절구공이를 자세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그래 그만하면 길이는 뭐 아쉬운 대로 되겠는데, 물건이 그렇게 가느댕뎅 해서야 쓰겠느냐? 어디 더 굵직한 것은 없더냐? 대부인마님의 한 번에 만족 하셔야 되느니라.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구해보도록 해라.

이방 : 사또~ 차과리 이 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보다 더 큰 물건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아옵니다.

현감 : 이 놈아, 네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 했구나! 썩나가 구하지 못 할까?

이방 : 하지만 사또~ 이보다 더 큰 물건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사또에게 반항하듯 말한다)

현감 : 이놈아! 대부인마님 거시기가 커서 그런다! 내들 어찌겠느냐! 어서 구해오너라.

이방 : (포졸들과 절구공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주저앉아 포졸들에게 다그친다) 야, 이놈들아! 너희도 좀 찾아봐라.

출들은 혼잣말로 "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요?"

사방으로 흩어진 포졸들이 서로 부딪치며 찾는 시늉을 한다. 이때 구경하고 있던 아전 한 사람이 이방에게 다가와 귀속말로 속삭인다. 이방이 포졸들을 불러 모아 큰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간다. 얼마 후 네 명의 포졸이 큰 물건을 메고 힘겹게 비틀거리며 사또 앞으로 간다.

이방 : 사~포. 드디어 구했습니다. 사또 온 나라를 다 뒤져서 구해온 물건이니 어디 한 번 살펴보시지요?

현감 : 아~ 땅아~ 하! 하! 이만하면 아쉬운 대로 쓸 만 하겠구나! 그런데 이 물건은 어디서 구했느냐?

이방 : (고개를 뺏뺏이 세우고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전국 방방곡곡을 해매다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또 사랑채를 바라보는 순간, 아! 이 좋은 물건이 서까래로 지붕을 떡~ 하고 바치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냅다 사랑채를 헉어 재치고 가져 왔습니다.

현감 : 아이구 죽일놈들~ 내가 아끼는 사랑채를 혼다니! 아무튼 잘 했다. 이제 이 물건을 대부임마님께 갖다드려야 하니 그것을 네고 나를 따라 오너라.

#### 4)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놀이 징검다리 건너기는 2005년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6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흥만기가 소리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도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내북면 풍물회

## □ 해설

청원군 내복면 창리에는 ‘주성교’라는 옛 돌다리가 있다. 이 돌다리를 매개로 전통혼례 행렬과 호상들이 징검다리 건너기가 전승되었다. 한쪽에서는 신랑신부를 태운 말과 가마가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여 행렬이 온다. 돌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양보하라며 편싸움을 한다. 결국 산 사람이 양보한다는 의미에서 상여 행렬이 먼저 돌다리를 건넌다.

## □ 구성

전통·흔례 행렬과 호상들이 징검다리 건너기는 신부가 부모님과 이별하는 장면, 풍악소리에 맞춰 신랑신부가 떠나는 장면, 학진아비와 하인들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장면, 호상의 반큼 만장을 들고 행렬하는 장면, 혼배을 모신 작은 상여를 메고 가는 장면, 시신을 모신 큰 상여를 메고 가는 장면, 신랑신부의 말, 가마와 상여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은 대감 2명, 풍악대 5명, 신랑신부 2명, 말과 돌다리 3명, 가마꾼 4명, 학진아비 5명, 만장 10명, 작은 상여 2명, 큰 상여 18명, 상주 5명, 문상객 5명 등 총 61명이다.

## □ 소리

### ● 상여소리1 : 굿거리장단

어하 어하~ 애하 이하~ 이하 어하~ 애해이~ 애하

우리야인생 태어날제 누구의은덕으로 태어났나~ 에헤 어하 에헤이  
하나님전 은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어~ 어하어하 에헤이 에하  
어머님전에는 살을빌고 칠성님전에는 명을빌고~ 어하어하 에헤이 에하  
제식님전에는 복을빌고 석가여래 시주하고~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이세상에 탄생을하여 십오세에 철을볼라~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이삼십<sup>은</sup> 담하고보니 가옥 한두칸살이~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무정세월<sup>은</sup> 넛업이 인생칠십을 다못사내~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인간은 칠십이면 돌아오니 걱정이 절러나네~ 이하 어하 에헤이 에하  
눈어둡고 귀가먹으니 망년듣다고 흉을보며~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구석구석에 흥을보니 애가달고 절통이나네~ 이하 어하 에헤이 에하  
홍안이백발이 되었으니 다시야젊지는 못하겠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인간이백년을 산다고하지만 잡는날이며 병든날이며~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걱정근심을 다제하고보며는 단사십을 못사나니~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어제날도 성둔양반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천상약질 약한몸에 태산같이 병이드니~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부르는건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어허 어혀 술한자 먹고서 같이가세~ 어하 어하 에헤이 에하

### ● 상여소리2 : 자드래기장단

어허 어하 어허 어하~ 어허 어하 어허 어하  
신선되려 가나~ 어허 어하  
분등삼산 캐리가나~ 어허 어하  
어허이 에하 어허 어하

너존비를 찾아가나~ 어하 어하  
백지암에 주인되어~ 어하 어하  
간로선인 하려가나~ 어하 어하  
시녁잘집 찾는새야~ 어하 어하  
요지원에 놀려가나~ 어하 어하  
낭중일자 호유되어~ 어하 어하  
명문가을 찾어가나~ 어하 어하  
팔도강산 유람하고~ 어하 어하  
자진봉이 되어가나~ 어하 어하  
수면장수 부군되야~ 어하 어하  
부자몸으로 태여가나~ 어하 어하  
어차 어차 어차 어차~ 우여 우여 우여 우여

## 5) 탕골개상제(탕골풍년제)

탕골개상제와 탕골풍년제는 동일한 작품이다. 탕골풍년제는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탕골개상제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 김인각이 연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산외면 풍물보존회

### □ 해 설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는 '탕골'과 '질골'이라는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

성되어 있다. 탕골에서 ‘개상제’가 전승되고 있다. 개상제는 개상질(벗가리 를 마당에 쌓아놓고 탈곡하는 행위)을 끝내 후 올리는 제의를 말한다. 일종의 추수감사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동놀이를 포함하고 있다. 개상제를 달리 ‘풍년제’라고도 한다.

## □ 구 성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탕골개상제의 재현 공연은 모임굿 → 점고 → 입장 → 원진 → 인사굿 → 읊자진 → 일자진 → 보내기→김매기→벼베기→탈곡(자리개질, 홀태질, 도리깨질) → 개상제(풍년제) → 정선 → 말질 → 대동놀이(을자진, 담쟁이진) → 원진 → 4열종대 → 인사굿→퇴장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연진은 기수(개상제행사기), 농기, 풍물보존회기, 주부대악기) 4명, 상쇠 1명, 부쇠 2명, 수징 1명, 부징 2명, 수장고 1명, 무장고 3명, 끝장고 1명, 수복 1명, 부복 1명, 끝복 1명, 선소리꾼 1명, 소고 8명, 태평소 1명, 양반 2명, 잡색이 21명, 아동 2명 등 52명이다.

### (1) 모임굿

태평소를 불며 모임굿을 시작한다. 상쇠는 치배들에게 농악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이채가락으로 치배들과 잡색들의 홍을 돋워준다. 치배들은 휘모리장단으로 홍을 들은 후 길굿(입장)을 준비한다.

### (2) 길굿

칠채(칠군애비장단)에 맞춰 행사기 → 개상제기 → 농기 → 풍물기 → 주부대기 → 치배 → 소고(모잡이) → 잡색이 등의 순으로 원진을 그리며 입장

상한다. 개인별 간격을 유지하며 농사도구를 들고 원진으로 입장한다. 기수를 앞세우고 원진으로 행진하다가 기수가 단상 정면에 위치하면 상쇠가 원진 가운데 서서 가락을 맵춘다.

### (3) 인사굿

상쇠의 장단에 맞춰 안으로 한 번, 관중을 향해 한 번 정중하게 인사한다. 이어 약간 빠른 자진가락으로 원진을 그린다. 기수들은 단상 오른쪽에서 기를 약간씩 움직이면서 대기한다.

### (4) 모내기

모잡이들은 상쇠의 자진가락에 맞춰 원진으로 돌다가 지개꾼의 지개에 실려 있는 모를 들고 춤을 춘다. 그리고 올자진을 그리며 모내기 위치로 이동한다. 잡색이들은 치배들 앞에서 덩실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아낙 등은 새참과 술을 머리에 이고 눈으로 향하는 연출을 한다. 상쇠의 신호 가락에 따라 앞줄과 옆줄은 적당히 맞춰 다섯 포기의 모를 씁는다.

### (5) 김매기

지개꾼의 지개에 실린 호미를 들고 김매기 준비를 한다. 선소리꾼은 북을 들고 눈으로 들어오며, 상쇠는 가락을 굽기리로 바꾼다. 보꾼들은 선소리꾼의 뒷소리를 받으며 모 주위에서 눈매는 행위를 한다. 잡색이는 새참과 술을 대주는 연출을 한다. 김매기가 끝날 무렵에는 선소리꾼의 소리가 빨라지며, 양끝의 일꾼들은 안쪽으로 모여 김을 맨 후 “자 이제 이 눈도 다 배었구나” 한다. 마지막으로 흙탕물을 일으키며 “이 ~ 히호”를 외친다.

### (6) 새참

김매기를 마치고 치배들의 빠른 가락에 맞춰 달팽이진을 만든다. 휘몰이

가락으로 한바탕 논다.

#### (7) 벼베기

치배들은 월진으로 돌며, 일꾼들은 치배들을 따라 돌다가 지게꾼의 지게에 있는 낫으로 바꾸어들고 모 심는 위치에서 자진가락으로 벼 베기를 실시한다. 이때 남자 농군들은 벼통과리와 벗가리를 만들어 벼를 다 벤 아낙들이 벼를 벗가리에 쌓도록 도와준다.

#### (8) 탈곡

자진모리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치배들이 뒤에 위치할 무렵, 소고와 잡색이들은 무대 앞에 자연스럽게 서 있다. 이어 자진모리가락을 마치고 굽거리장단으로 개상질을 한다.

#### (9) 개상질

옛 소리에 맞춰 개상질을 한다. 좌로 치고, 우로 치고, 돌려 치고, 업어 치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개상질을 하는 동안 아낙은 술과 안주를 광주리에 이고 다니며 일꾼들에게 술을 따르고 흥을 돋워준다.

#### (10) 개상제

개상질을 마친 타작꾼들은 개상을 옆어놓고 개상제 지낼 준비를 한다. 아낙 두 명이 밖으로 나가 개상제를 올릴 제사상을 준비하여 개상을 옆음과 동시에 제사상을 들고 들어온다. 상쇠가 가락을 맷음과 동시에 모두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를 올릴 준비를 한다. 제주는 향과 초에 불을 밝히고 술을 부어 잔을 올리며 소지를 태우면서 바람을 고한다. 소지를 올림과 동시에 상쇠의 연타에 맞춰 모두 일어나 절을 세 번 한다. 제를 올리고 현 위치에서 굽거리장단으로 치배별 놀이를 한다.

### (11) 치배별 놀이

상쇠가 가운데 위치한다. 팽가리와 징은 1진을, 장고는 2진을, 북은 3진을, 소고와 잡색이는 4진을 이룬다. 상쇠의 신호가락에 맞춰 치배별로 놀 이를 한다.

### (12) 정선 및 저장

치배별 놀이가 끝나면, 치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굿거리로 말질소리를 맞춘다. 말질을 하는 동안 아낙들은 술과 안주를 나른다. 양반집 주인네는 너주단지에 나락을 담고 배례한다. 도리깨질, 풍석질, 훌태질, 비질 등으로 정선된 나락을 봉쇄기에 담는다. 아낙들이 벼통과리로 날라 저장한다.

### (13) 대동놀이

자진가락으로 읊자진을 그리며 놀다가 원진을 만든다. 기수는 원진 가운데로 기를 흔들며 들어오고, 잡색이들은 소품을 들고 흥에 맞춰 가운데서 춤을 춘다. 개상질을 하던 남자들은 개상을 앞쪽으로 옮겨 장소를 넓혀준다. 자진보리, 오방진, 휘보리가락으로 농악놀이를 마무리 한다.

### (14) 인사굿

대동놀이를 마친 후 달팽이진을 원진으로 풀어 원을 그리며 돌다가 기를 앞세우고 4열로 맞춰 인사굿을 한다.

### (15) 퇴장

기수는 무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치배들과 잡색이들은 달팽이를 풀어 4열종대로 정렬한다. 자진보리가락으로 퇴장한다.

## □ 소 리

### ● 풍물패 입장을 알리는 소리

문엽쇼 문엽쇼 서문장 문엽시고  
많은인간 들어가고 만고복록에 두둥실  
태산같이 많이 들어갑니다

### ● 김매기 소리

어허이야 자리한다 어려한다 저려한다  
남상답상 닻마지기 어려한다 저려한다  
반달만큼 남았구나 어려한다 저려한다  
네가무슨 반달이냐 어려한다 저려한다  
우리님이 반달이지 어려한다 저려한다  
우리님만 반달인가 어려한다 저려한다  
남에님도 반달이지 어려한다 저려한다  
지어가네 지어가네 어려한다 저려한다  
접심찬수 지어지네 어려한다 저려한다  
방실방실 밥팡우리 어려한다 저려한다  
반달같이 떠오르네 어려한다 저려한다  
어려한다 저려한다 어려한다 저려한다

## 6) 팔상전놀이

팔상전놀이는 1994년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에 3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내속리농협주부농악대

### □ 해 설

팔상전놀이는 속리  
산 법주사 내 국보 55  
호로 지정된 팔상전을  
소재로 한 농악이다.  
문화재청에서는 팔상  
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  
(553)에 인도에서 공  
부를 하고 돌아온 승려  
의신이 처음 지은 절이  
다.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짓고 1968년  
에 해체·수리한 것이다.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라 이름 붙었다. 1층과 2층은 앞·  
옆면 5칸, 3·4층은 앞·옆면 3칸, 5층은 앞·옆면 2칸씩으로 되어 있고, 4면



팔상전놀이 1



팔상전탑돌이 2

동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고, 5층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설치한 나포 양식으로 꾸몄다. 건물 안쪽은 사리를 모시고 있는 공간과 불상과 팔상도를 모시고 있는 공간, 그리고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주사 팔상전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탑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하나뿐인 복조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에는 돌계단이 있는데 낮은 기단 위에 서 있어 크기에 비해 안정감을 준다. 지붕은 꼭대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4개의 지붕 면을 가진 사모지붕으로 만들었으며, 지붕 위쪽으로 탑 형식의 머리장식이 달려 있다. 건물의 양식 구조가 층에 따라 약간 다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



## 옥천 민속놀이

### 1) 방아실두레

방아실두레는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42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는 '방아실두레놀'이라는 명칭으로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옥천민속팀

#### □ 해 설

방아실은 옥천군 군북면의 한 자연부락으로 대청댐 개발로 인해 수몰되었다. 이 주민들은 고향의 뒷산자락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부락에서 논농사와 관련한 보찌기소리, 보심기 소리, 김매기소리, 노홍치기소리 및 부녀자들의 방아찧는소리, 길쌈질소리 등이 발굴되었다. 선소리꾼의 선창과 후소리꾼의 후창으로 가장이 이루어진다. 주고 배기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소리에는 농사 방식, 삶의 애환, 풍자와 해학 등의 요소가 담겨 있다.



방아실두레놀이

## 2) 솟대놀이(청마리탑신제)

솟대놀이와 청마리탑신제는 명칭만 상이할 뿐 공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솟대놀이는 1996년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28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청마리 탑신제는 2000년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9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한울림놀이파(1996년), 한울림농악대(2000년)

### □ 해 설

옥천군 동아면 청마리 마티마을에 있는 제신당을 '탑신제당'이라고 한다. 원탑(조산탑), 짐대(솟대), 장승, 산신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12월 28일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원탑은 마을 어귀에 세워져



솟대제



장승제

있다. 높이 5m, 둘레 7m 규모의 원주형이다. 짐대는 높이 5m의 긴 장대 끝에 오리를 짹아 올려놓고 있다. 장대에 오리를 올릴 때에는 머리를 남방으로 향하게 한다. 장대에는 황색과 흑색의 용틀임 단청을 하는데, 황색은 황룡을, 흑

색은 흑룡을 상징한다. 황색은 황토로, 흑색은 진흙에 숯가루를 반죽하여 표현한다. 장승은 통나무에 사람 형상을 벽으로 그려놓은 소나무로 수문장 역할을 한다. 산신당은 뒷산 소나무를 신목으로 상징한다. 장승과 속대는 윤년 청월 대보를 전 날에 만들어 세운다.



장승제



총각의 발원

## □ 구 성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터마을 탐신제의 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제관 선정

정초에 생기복덕에 맞는 제주를 선출한다. 산신제와 탐신제의 제관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보통 연장자가 산신제를 주관한다. 동이면 금암리 김명수가 생기복덕을 가리는데, 주역의 판괘를 보고 가린다고 한다. 판괘에는 생기, 복덕, 천의, 질체, 유흔, 귀흔, 화해, 전병이 있는데, 남자는 생기가 좋고 여자는 복덕이 맞아야 좋다. 현재는 생기, 복덕, 천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제관으로 선정된다. 예전에는 환갑이 지나야 제관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마을에 워낙 사람이 없어 그런 기준도 없어졌다. 제관은 제주를 정월 초엿새에 빚는다. 또한 음식을 장만하여 집 앞에 원새끼로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황토를 집 앞에 6근데 놓아 악귀의 접근을 막는다. 또한 예전에는 일주일간 문 밖 출입을 금하였으며, 매일 아침 찬물로 복용재계를 하여 신신을 청결히 하였다.

## (2) 신목준비

정월 열나흘날 아침, 산에 올라 장승과 솟대에 적합한 신복을 고른다. 신복을 정할 때는 마을에서 최고 어른을 모시고 간다. 최고 어른이 적합한 소나무를 선정하면, 그 나무를 ‘신목’이라 하여 나무 밑에 짚을 깔고 흰설기와 술 그리고 명태를 진설한다. 그리고 제관이 재배한 후 도끼로 세 번 썩고 음복한다. 최고 어른이 신복을 잡고 “동민과 합의하여 비는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하면 모두가 절을 하고 신목을 베기 시작한다. 예전에 신복을 모실 때는 광복천으로 싸서 목도로 운반하였다. 이때 밭맞추는 노래로 “모셔가세 모셔가세 천하장군 모셔가세. 모셔가세 모셔가세 지하장군 모셔가세. 모든악귀 물리칠 추악신을 모셔가세. 영신산령 주신선물 조산들로 모셔가세.”를 불렀다고 하나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목을 깎을 때는, 옛 장승을 옆에 놓고 신목에 먹출로 밑그림을 그리고 도끼, 톱, 대패를 사용하며 장승을 깎는다. 또 한쪽에는 솟대에 얹을 오리를 깎고, 긴 장대에 황룡과 흑봉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다.

## (2) 제의 절차

### ① 산신제

산신제는 제관 내외만 주관한다. 신제는 소나무인데, 본래 나무는 700년이 넘어 썩어서 몇 년 전 바람에 넘어가고 요즘은 그 옆에 새로 난 소나무를 신목으로 보신다. 먼저 원새끼를 꼬아 소지를 끼워 신체에 묶고, 신체 앞에 짚을 깔고 제물을 차린다. 축문은 없고 소지를 올리는데, 맨 처음에는

동네를 위해서 올리고 다음에는 성씨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읊는다.

### ② 탑신제

탑신제는 해가 뜨기 전에, 첫소리로 징을 세 번 울려 잡귀잡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마리 제신탑이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면서 각지에서 관계자들이 찾아와 현재는 아침 9~10시 사이에 제의를 올린다. 먼저 집사가 따라준 잔을 제관이 제상에 놓고 재배한 후 제상 앞에 앉는다. 집사는 술을 탑에 세 번 나누어 뿌린다. 제관은 다시 잔을 들고 술을 가득 받아 제상에 올려놓는다. 모두 함께 재배한다. 그런 다음 집사가 제관에게 소지를 주면, 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소지 기원을 읊는데, 소지에는 마을과 개인의 평안과 풍년은 물론 가축들의 다산과 안녕을 비는 마음도 담겨 있다.

### ③ 솟대제

소지를 올린 후 제관만 읍복하고, 제상을 든 집사들을 따라 솟대로 이동한다. 이때 풍물은 치지 않는다. 제상을 솟대 앞으로 옮기고 탑신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의를 올려는데, 속만 새 것으로 갈고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 ④ 장승제

청마리 마터마을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 있다. 제의는 천하대장군에 제단 올린다. 제상을 천하대장군에게 옮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의를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이 읍복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읍복 합시다.”라고 하며, 마을 주민들이 읍복하기 전에 총각은 미투리를 만들어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아 지하대장군 앞에 갖다 놓는다. ‘장가가게 해달라’고 밤원하며 배례하면 장가를 갈 수 있다고 믿어 왔다.

### 3) 평산교평다리밟기

평산교평다리밟기는 1999년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옥천민속팀

#### □ 해 설

평산교평다리밟기는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다리밟기 대동놀이이다. 정월 대보름 전에 청산교(한나리)의 보수정비를 마치고 현웃가지나 짜투리 웃간 등을 각출하여 향교 홍살문에서 강줄을 둈다. 강줄을 당기며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춤다리기를 한다. 패한 마을 사람들은 이긴 마을에서 하루 동안 농사일을 거둘 것을 약속한다. 이후 모두가 강줄을 메고, 제주와 제물, 음 준비하여 청산교(한나리)에서 다리밟기를 한다. 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니, 한 해 동안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한다.

#### □ 구 성

시종 풍물이 윤과는 가운데 술과 안주로 흥을 돋우고, 제를 마치면 강줄을 불살라 각자 소원을 빈다.

# 영동 민속놀이

## 1) 꽃반굿

꽃반굿은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1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5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전년도와 같은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 해 설

영동군 용산면 일원에서는 대보를을 전후해서 길립패들이 각 마을 각 가정을 돌며 집터를 누르고 잡귀를 물리는 액막이로서 길립을 해왔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길립패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했다. 또 형편껏 쌈이며 돈을 기부했는데, 이 기금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에 부상초등학교를 건립할 때는 용산면 일원의 모든 마을, 모든 가정을 돌며 굿판을 벌여 길립기금을 마련했다.



꽃반굿



질골막장소리

## □ 구 성

꽃반굿의 재현 공연은 고유제 → 안택굿(방안굿, 부엌굿) → 잡귀 내치는 굿 → 영간타령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질립패는 소리꾼 1명, 팽과리 4~5명, 징 2~3명, 장구 15명, 북 10명, 가수(풀불단, 예술단기, 농기, 영기, 용기)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고유제는 대주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작하고 배례하며 소지를 올린다. 통돼지, 흰시루, 삼색실과, 마걸리 등을 진설한다. 그리고 쌀을 봉새기(짚으로 짠 바구니)에 담아 진설하고, 그 위에 흰 실을 걸친다. 안택굿은 선소리꾼의 “그 전에 소리꾼이 집을 잘 지어놓았으니, 이집터를 눌러주세요”를 나머지 질립패가 복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선소리꾼이 “누르세 누르세 이댁에 집터를 누르세” 하면 나머지 질립패가 복창한다. “누르세 누르세 이댁 터주를 누르세”, “잡귀와 잡

신은 물려가고 반복재산은 이택으로”, “아파그물 잘난다 평평잔난다 아파그물 좋다 멀찌꺼기 잡수소 물주세 물주세 사해용왕에 물주세”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한다. 잡귀를 내치는 곳은 각설이가 소리를 하고 걸림패가 추임새를 하는 것으로 곳판의 흥을 둔운다. 영간부부가 한 대복씩 주거나 받거나 소리를 하는 영간타령과 벙고놀이로 곳판을 마무리한다.

## □ 소 리

### ● 꽃반굿

고심고실은 고사로나 사마하니 고사로다  
산지조종은 곤륜산 수지조종은 황해수  
곤륜산명기가 똘똘이져서 어디로간지 몰랐더니  
이택이집터가 되었구나 이집터를 볼작시면  
앞으로보면 일산봉 뒤로보면 감토봉  
옆으로보면 연적봉 그아니 좋으시고  
앞으로보면 일산봉이니 고판대작 날자리요  
뒤로보면 감토봉이니 삼정승 날자리라  
옆으로보면 연적봉이니 육조판서 날자리니  
그위에 더바랄소냐 이집터를 잡았으니 집터를 닦아라  
집터를 닦을적에 우각불이 좌각불이  
배흘려 기사주바리 바리바리 싣어다가  
높은데는 밀어내고 얕은데는 돌아놓아  
이리저리 닦은후에 재불이있어야 집을짓지  
집재불을 구하려고 앞집에 간대목을 금도끼를 침이지고

툇집에 박대복은 옥도끼를 짊어지고  
집재목을 구하려고 경상도안동땅 제비원을 찾았구나  
제비원은 찾아가서 솔씨를 하나 던졌더니  
그 솔씨가 점점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자라 황장목이 되었으니  
그 낭구를 베려하고 나부꾼을 바라보니 까마까치 집을 짓네  
나의 성주 삽으려고 남의 성주 베일소냐  
그 낭구를 거기두고 만첩산중 드러가니  
성주복이 완연하네 금도끼로 땅땅베어 옥도끼로 다듬어서  
잦은나무 곧다듬고 굽은나무 곧다듬어  
바리바리 싶어다가 안채는 입구자 사광채는 갈지자  
2,9<sup>1</sup>는 18 열여덟칸을 벗들어지게 지어놓고  
네끼에 풍성다니 동남이 것뜻부니 딩그렁 뻥그렁 소리난다  
방안살림을 보아라 방안살림을 볼작시면  
오동장농 잣메개에 사개함 농반다지는 보기좋게 포개놓고  
긴답랫대 짚요강은 빨즘빨즘 밀어놓고  
꽁단이불이 열두채 맹단이불이 열두채 수단이불이 열두채  
저이불을 덮으니 꽁단수단이 칼춤을 춘다  
아하에 아라로구나 부엌살림 보아라  
부엌살림을 볼작시면 가마솥이 열두개 밤솥이 열두개 국솥이 열두개  
세부줏댕이 질겅눅어 이구석 저구석 세워놓으니  
이아니 좋을시고 그아니 더바랄소냐  
살림만 있으면 무일하나 재산이 있어야지  
이집재산을 보아라 이집재산을 볼작시면  
앞에는 거머리는 뒤에는 개똥밭

노적봉에 학이 앉아 한남개 톡탁치면 일이 천석 쏟아지고  
또한남개 톡탁치니 저리천석 쏟아지고  
온봄을 둑털으니 역수만석 쏟아진다

## 2) 호미실너리기편지기

호미실너리기편지기는 2004년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63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 해 설

'너리기편지기'는 농동  
이의 일종인 '너리기'와  
'편지기'를 결합한 용어  
로 여자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둘면서 다양한  
사설을 부르며 노는 대  
동놀이를 말한다. 영동  
군 호미실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집단  
으로 너리기편지기를 즐  
겼다. 호미실너리기편  
지기는 '너리기 편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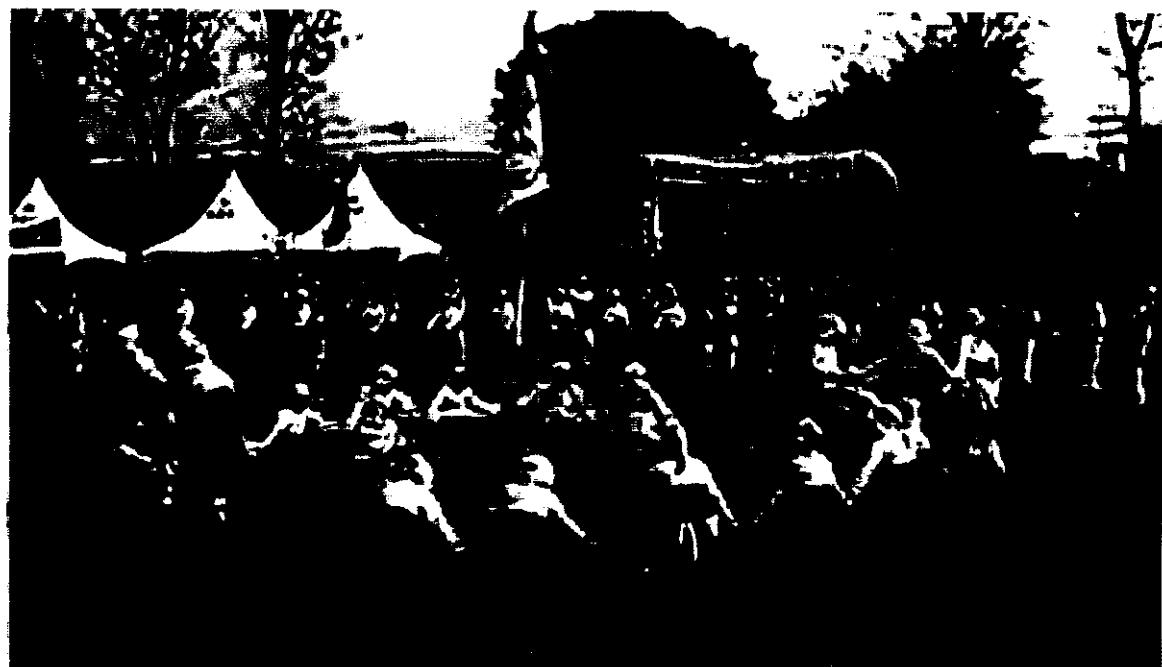
너리기편지기 ~ 문뚜방님기

놀이', '고사리 꺾기', '문뚜방 넘기', '장꽝너리기 놀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 구 성

### (1) 놀이패 입장

반장, 풍물패, 놀이패 등의 순으로 입장한다. 놀이패는 너리기와 편지기 를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있다. 풍물패와 놀이패가 뒤섞여 한바탕 놀 후, 소리꾼이 "너리기 편지기 하세!"하고 외치면 정렬한다. 이후 관람석 바깥쪽을 향해 약 1m 정도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놓어서 춤을 춘다. 춤은 좌우로 팔을 흔들며 굴신을 하는 형태이다. 풍물꾼 뒤에는 치배들이 약 2m



너리기편지기 – 웅덩넘기

정도의 간격으로 놓여서 있다. 만장을 사람들은 치매들 사이에 서서 만장을 가락에 맞춰 위아래 또는 옆으로 흔든다.

#### (2) 원무

소리꾼이 '너리기편지기' 소리를 시작하면, 놀이패 여성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3) 너리기 1 : 마주 바라보는 원에서 밖을 바라보는 형태로 원 뒤집기  
놀이패 중 한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팔 끝을 통과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나간다. 이어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놀이패 여성들은 원 밖을 보는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뛰며 둔다.

#### (4) 너리기 2 : 다시 마주보는 원으로 형태 바꾸기

마주 바라보는 원래 형태로 되돌아간다.

(5) 웅덩넘기 :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 위로 넘어가기  
놀이패 여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을 타 넘으며 뛰어 둔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를 통해 두 패로 나누어진 놀이패는 자연스럽게 서로 반원 형태를 구성한다. 이어 원을 만들며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 둔다.

#### (6) 청어엮기 : 웅덩넘기와 반대로 넘어가기

놀이패 여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팔 아래로 빼서 나가며 뛰어 둔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를 통해 두 패로 나누어진 놀이패는 자연스럽게 서로 반원 형태를 구성한다. 이어 원을 만들며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 둔다.

(7) 실꾸리똘똘 :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제자리에서 좌우로 회전하기 놀이패 여성들은 제자리에 벤춘다. 소리꾼의 “실꾸리똘똘 명주꾸리똘똘”에 맞춰 2인 1조가 실꾸리똘똘을 한다. 이어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에서 원을 만들여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 돈다.

(8) 문뚜방넘기 : 두 줄로 서서 상대편의 춤 넘기  
놀이패는 두 줄을 만들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신나는 율동으로 춤신을 한다. 놀이패는 “문뚜방넘기는 훨훨”, “세월이나 넘어보세”라는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반대편에 있는 줄로 “와”라는 학성을 시르며 달려가 한꺼번에 줄을 넘는다. 이어 “팽매기철철 잘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넘어간다”를 하면서 원을 만든다.

(9) 닭잡기 : 술래는 매가 되고, 출의 맨 앞 사람은 어미닭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닭이 되어 매를 피하는 놀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소리꾼의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소리에 맞춰 줄을 만든다. 맨 앞 사람은 매가 되어 혼자 서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허리를 잡고 한 줄을 만든다. 소리꾼의 “닭잡자!”라는 구령과 함께 줄을 만든 사람들은 “와” 하는 소리에 이어 “꼭꼬댁 꼬꼬꼬” 소리 등을 낸다. 매가 된 사람은 닭을 놀리기도 하면서 돌아다닌다.

## □ 소 리

### ● 너리기편지기

장꽝에 너리기 너리기 밑에 편지기

편지기 밑에 두릅바 두릅바 밑에 옥동이  
장꽝에 너리기 너리기 밑에 편지기  
편지기 밑에 두릅바 두릅바 밑에 옥동이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

### ● 웅덩넘기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웅덩넘기가 훨훨 고사리 꺾기가 훨훨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

### ● 청어엮기

너리기 편지기 장꽝에 소래기 너리기 편지기 장꽝에 소래기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 철철 잘 넘어간다

### ● 실꾸리똘똘

실꾸리똘똘 명주꾸리똘똘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 문뚜방넘기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문뚜방넘기는 훨훨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세월이나 넘어보세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문뚜방넘기는 훨훨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세월이나 넘어보세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팽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 ● 닭잡기

쨍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쨍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쨍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쨍매기철철 잘 넘어간다  
닭잡자 잘한다 다잘한다 잘한다

### 3) 영동호미씻기

영동호미씻기는 2002년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3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 해 설

호미씻기는 한 해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별김매기를 끝내고, 칠석이나 백중 때에 농민들이 농사일의 노고를 달래면서 벌이는 놀이판을 말한다. ‘풋굿’, ‘초연’, ‘벼습날’, ‘농부날’이라고도 한다. 두레농사를 결산하면서 땅 주인들은 농군들의 노고를 위로할 겸 돈을 내어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풍물꾼들은 집집마다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무농을 태우고 하루를 즐겁게 논다. 영동호미씻기는 영동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호미씻기를 재현한 민속놀이로 풍물과 신풀이를 연희한다.

## □ 구 성

풍물굿의 시작을 알리는 ‘굿내는가락’, 놀이판으로 들어서는 입장굿(길굿), 삼진삼퇴의 형태를 잘 드러내는 삼방울진, 사채가락, 치배들이 “호호” 또는 “혀허” 하며 노는 호혀굿, 치배들이 엇갈리거나 벗겨서 노는 가새진, 치배들의 이동 및 진과 진 사이의 읊자진, 서로 마주서서 밀고 당기는 미지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4) 질골집터다지기

질골집터다지기는 2003년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54명이 출연하여 단체상 부문에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 영동민속팀

## □ 해 설

집터다지기는 가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체 집터를 다진 후 주춧돌 놓을 자리를 더욱 다지는 민속놀이이다. 이 일은 고된 노동이기에 일의 피곤함을 잊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질골에서 ‘집터다지기소리’가 고형의 형태를 유지하며 전승되고 있다.

## □ 구 성

질골집터다지기는 지신제, 지신무, 집터다지기, 꽃반굿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 V. 전승양상과 보존 방안

## 1. 충북 민속예술의 전승 양상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병제는 충북민속예술축제, 나아가 전국민속예술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속예술은 본디 생활 공간에서 삶의 양식으로 존재해 왔으며, 지속과 변화를 거쳐 전승되어 왔다. 즉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예술을 경연 방식으로 견인하거나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듯이 충북민속예술축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지만, 민속예술의 각 부분마다 한시적인 복원에 머물렀을 뿐 지속적인 계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 농악

민속예술은 개인과 사회집단, 나아가 한 민족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세계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형태가 무형이기 때문에 쉽게 임시별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문화의 결정체인 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대 '청주농악'을 중심으로 전승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판제(진법)의 변화

청주농악의 판제와 연행순서는 행사의 규모 및 장소·성격에 따라 상쇠나 연출자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었다. 청주농악에 대한 이보형(1976)·오세란(1986)·박진(1991)·한미경(1995)·정은면(1996)·조진국(2008) 등의 글에서도 판제의 구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주농악 판제와 연행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주농악 판제와 연행순서〉

이보형(1976년)	오세란(1986년)	박진(1991년)	한미경(1995년)	조진국(2008년)
		모임굿	보임굿	
		길군악굿	길군악굿	입장
		인사굿	인사굿	본부석인사 내빈인사
돌립벼구	꽃봉우리	꽃봉오리굿	꽃봉오리굿	꽃봉우리
사동백이	사성	사성굿	사성굿	사성
				쌍줄배기
갈림법구	벽구놀이	법고놀이굿	법고놀이굿	벽구놀이
고사리꺾기				
가새밖뜀	쓰레질	쓰레질굿	쓰레진굿	
명석발이	진채굿	명석말이굿	명석말이굿	
	십자	십자놀이굿	십자놀이굿	십자걸이
	삼통백이	삼성굿	삼성굿	삼성
	새조시	새조시굿	새조시굿	새조시
		좌우치기		좌우치기
		갈지자굿	갈지자굿	갈지사진
		태극굿	태극굿	태극진
		채상놀이굿	채상놀이굿	12밤놀음
			오방감기	명석말이*
				퇴장행진
상쇠놀이				
법구놀이				
장고놀이				

\* 명석말이를 '오방감기'의 별칭으로 보았다

## (1) 시기에 따른 변화 내용

### ① 판제의 명칭

판제의 명칭은 농악현장에서 농악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농악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일정하지 않고 또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보편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농악의 명칭을 차용하고, 필요하면 조사자가 임의로 조어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청주농악에서도 판제(진법)의 명칭이 혼용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의 표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굿’을 판제의 명칭 뒤에 붙이는 점이다. 굿은 무당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새물을 바치고 가무와 의식절차를 통해 행하는 제사의식이다. 굿은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이며, 당골을 중심으로 한 직업적인 신앙과 부락신앙(별신굿 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악이 부분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991년 이전이나 2008년 조진국의 글에서는 ‘굿’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1991년 박진의 글과 1995년 한미경의 판제의 명칭에는 ‘굿’이 붙어있다. 그러나 ‘굿’의 명칭은 호남지방에서 사용하는 명칭 형태이고, 청주·농악에서는 ‘굿’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청주농악에서 ‘굿’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인굿’·‘입장굿’·‘인사굿’이라 하는 경우가 많는데, ‘보입’이나 ‘입장’은 농악을 연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인사는 공연의 관행의례이며, 굿이나 놀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입굿·입장굿·인사굿이란 용어는 적절한 말이 아니다.

다음으로 판제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찍찍이는 일명 ‘동리3채’라고 하는데 농리는 무동(舞童)을 어깨 위에 세우고 추는 춤의 이름인 ‘동고리’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찍찍이는 동고리를 춤 때 3채로 치는 춤장단을 말한다. 새조사는 ‘네줄배기’의 별칭이고, 쌍줄배기는 ‘두줄배

기’의 별칭이다. 당산벌림은 당산제(堂山祭)를 지낼 때 신당(神堂) 앞에 서 있는 제의농악(祭儀農樂) 대의 대형에서 유래된 말이다. 본래는 〈U〉형인데 지금은 〈U〉형으로 연행하고 있다. ‘갈지자진’은 ‘자자진’이 변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굿’·‘찍찍이’·‘새조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김영진 교수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판제 명칭의 변화는 타 지역 농악의 영향과 농악인들의 편의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전통적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판제의 구성

판제는 명칭의 변화 외에도 순서와 종류의 변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76년 이보형의 글에 나타난 농악대 전원이 참가하는 판제는 돌립벽구—사통백이—갈립벽구—고사리꺾기—가시발림—명식발이 등 6가지이다. 그러나 1986년에는 고사리꺾기가 없어지고 십자·통백이·새조시가 새로 추가되었고, 1991년에는 모입굿·길균악굿·인사굿·좌우치기·갈지자굿·태극굿·채상놀이굿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판제의 종류가 없어지거나 증가하는 현상은 타 지역의 농악판제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고, 또한 공식행사나 농악경연대회에 빈번히 참가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면도 있으나, 농악대원들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청주농악의 원형이 인멸되거나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청주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각종 행사나 대회에 출전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즉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청주농악이 예술적 측면과 공연적 측면만을 부리하게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 진도의 씻김굿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씻김굿이 중요부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정된 팀의 씻김굿이 지정되지 않은 팀의 씻김굿에 비

해 세련되고 예술적 면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변이양상'은 문화재의 원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문화재 지정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다. 원형보존을 위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수공간의 부재

충북의 각 지역에는 농악대가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한 농악대는 없다. 특히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청주농악조차 전용 연습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악은 수십 명이 대형을 이루며 진행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청주농악대의 자력만으로는 청주지역 내에서는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은 어려운 일이다.

## 2) 농요

1994년에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를 치렀다. 애초 농악 경연대회로 출발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민속예술 중 농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시작된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충청북도에서는 농요만을 대표작품으로 출연시켰다. 그러나 그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 및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작품을 제외하고는 한 번 또는 두세 번 출연한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그 이유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해 본다.

첫째, 농요를 구연할 만한 난원을 확충하기가 어렵다. 농경의 기계화로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는 농요가 전승되지 않는다. 시연이나마 농요를 구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령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

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관심이 있더라도 시류에 따라 사문을 배우려고 할 뿐 전통농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당면한 문제와 과제는 ‘앞으로 단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은 충청북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희 양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다. 경연대회에 입해, 현장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연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원래 작품을 연희 형식으로 연출하여 이를 연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0분 동안 경연대회에서 연희해야 한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성과 연출을 해야 하는 이를바 ‘연희작품’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너무나 대회가 경연이다 보니 입장 을 목적으로 내용과 형태를 변개하고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대회가 고유한 농요를 변질 또는 변형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농요는 즐기는 것이어야 바탕하지 결코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속예술축제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속예술-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의 서문에는 “풍성한 민속문화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함께 하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 겨레는 민족공동체의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민속문화는 우리를 남의 민족과 구분하게 하는 바탕인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며,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사라져가는 향토민속예술을 발굴, 재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농요 분야에 국한할 수 없이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오늘날 충북민속예술축제, 나아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많으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3) 민속놀이

지난 15년 동안, 민속놀이 분야에서 총 36개 작품이 출연했다. 그리고 7개 작품이 해당년도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산정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작품이 출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작품이 작품명만 달리 해서 해를 거듭하거나 한두 해 걸쳐 출연하기도 했다는 데서 이들을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없다. 예컨대 보은군 탕물개상제와 탕물풍년제, 송이놀이와 속리산송이놀이, 옥천군의 솟대놀이와 징바리탑신제 등이다.

민속놀이는 민속사회, 민속예능, 민속신앙 등과 맞물려 전승되어 왔다. 기존의 출연 작품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출연 작품을 민속문화의 하위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민속사회를 균간으로 하는 작품이 14개, 민속예능을 균간으로 하는 작품이 12개, 민속신앙을 균간으로 하는 작품이 10개 등이다. 그런데 기존의 출연 작품을 일별하면 일정한 시기별로 어떤 흐름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94년 제1회 대회가 '충북농악경연대회'라는 타이틀을 표방했던 바, 1990년대 후반까지 제천군의 농악싸움, 제천시의 팔진법놀이, 충주시의 부동놀이, 증평군의 벌양복놀이 등 농악과 관련한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농업활동 및 대보름이나 백중 등 세시풍속에서 농악과 관련한 작품들이 같은 맥락으로 대세를 이루었다. 다른 민속행위에 겸부되어 존재하는 농악이 아니라, 농악 그 자체가 중심에 존재하는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도 초반에는 전대의 부강호상놀이를 필두로 일생의례 중 상례와 관련한 작품들이 출연했다. 2000년도 중반에는 집터를 다지는 등 건축과 관련한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출연했다. 특히 민속신앙을 균간으로 하는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대세를 이루었다. 산신제, 서낭제, 별신제, 우불제, 기우제, 용왕제 등 민속신앙을 균간으로 하는 작품들이 단양군의 각기

선돌봉치기, 충주시의 양진명소오룡굿, 보은군의 불다르기를 제외하고 모두 2회 이상 출연했다. 제천시의 오타별신제는 5회를 거듭 출연했고,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36개 작품이 출연했고, 7개 작품이 해당 년도 단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승되고 있는 작품은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제천시의 오타별신제와 옥천군의 솟대놀이(청마리탑신제)에 불과하다. 이와 보은군의 송이놀이(속리산송이놀이), 음성군의 거북놀이와 톡실가재줄나리기, 충주시의 목계별신제와 양진명소오룡굿 등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으로 편입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단절된 것을 재구하여 출연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채 10%에도 못 미치는 전승의 비율은 충북지역 민속놀이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출연 작품의 급조’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12개 시·군의 경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급조한 작품을 인위적으로 출연시키기도 했다. 경연 시기에 임박해 특정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급조한 작품을 출연시켰기 때문에 지극히 일관적인 형태의 민속놀이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민족문화의 계승이라는 본래 목적은 차치하고 참여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결국 행사용이자 일회용 작품으로 전락해 차후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자료들마저 모두 흩어져 버렸다.

둘째, ‘소재의 고갈’을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민속놀이 발굴에 의한 새로운 작품 구현’이라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출연 작품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해를 거듭하거나 한두 해 걸쳐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들로부터 본격 심화되었다. 심지어 몇몇 경우에는 대상을 수상할 때까지 거듭 출연하기도 했다. 공연의 경제화나 고급화를 지향했다는 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민속놀이의 현장성이나 역동성은 그만큼 퇴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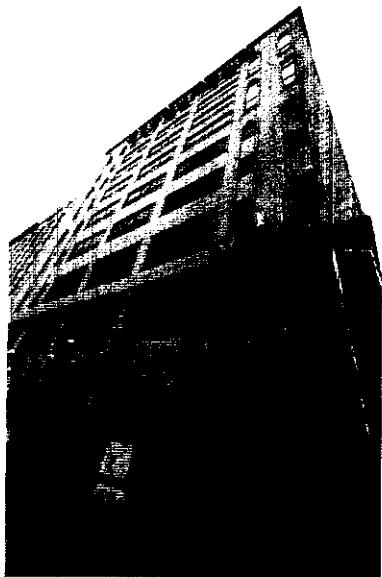
셋째, '지도자의 단일·지속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풍물  
페의 상쇠나 특정 국악인이 거의 모든 출연 작품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  
성, 연출, 감독, 차후 전승에 이르기까지 일인다역을 담당했다. 물론 그들  
의 열의야 어떤 이유에서든 가치 폄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승 주체들의 창조적 전승을 가로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본래 전  
승의 맥락에서 이탈했다. 결국 예능 일변도의 작품들이 일반화되어 민속이  
라는 삶의 현장과 괴리감을 유발했다.

## 2. 충북 민속예술의 보존 방안

전국민속예술축제를 계기해서 1966년에 전라남도가 '제1회 남도문화제'  
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예선 형식의 경연 방식을 도입했다. 이래 각 지역별로  
비슷한 형태의 '향토문화제' 또는 '경연대회'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  
별로 예선대회를 개선한 시점은 차이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남민속  
예술축제'는 37회, '경남민속예술축제'는 35회를 기록하고 있다. 충청북도  
의 경우에는 1994년에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16회를 기록  
하고 있다. 여느 지역에 비해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간 예선대회를  
통해 지역의 민속예술을 활성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존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전승공간의 확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  
수공간의 확보이다. 도 지정 기능보유자들이나 보존단체의 자력으로는 불  
가능한 일이기에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전수회관 전경



전수회관 내 민속극장

강남구 산성동에 중요문화재의 전승과 보존·보급을 위해 전수회관이 마련되어 있다. 1997년에 개관한 이 회관은 민속극장과 전통공예관이 있으며, 규모는 예능동 5,808m<sup>2</sup>, 공예동 5,586m<sup>2</sup>으로 되어있다. 전통공예품의 우수작품을 상설전시하며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발표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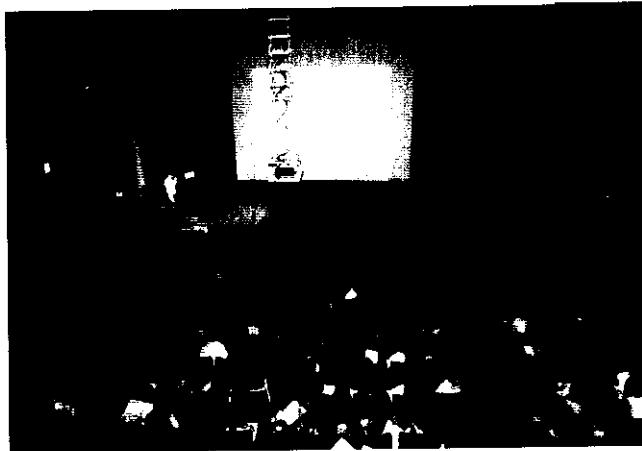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단지 서울뿐만 아니라 가까운 대전도 들 수 있다. 대전시는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연면적 1,620m<sup>2</sup>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했다.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2개소, 전시실 1개소, 사무실 1개소가 완비되어 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균린공원 내에 기와를 올린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2009년 4월 문을 열었다. 이곳은 대전시에서 지정한 17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공간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이

를 통해 대전의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지정된 종복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수회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이며, 자존심인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전승 보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재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에서 기능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를 지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 전수 교육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수회관내 공연장

## 2) 기능 전수의 체계적 관리제도 확립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법적으로 전수교육을 통해 전승자를 계발·교육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개발표공연을 해야 할 의무를 지나고 있다. 현재는 전수자의 선발과 이수증의 발급, 전수교육조교의 선발, 전승 교육의 실시 등이 모두 기능보유자의 재량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은 심질적으로 기능보유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원칙적으

로 전수자와 이수자의 예술적 측면의 평가는 해당 기능보유자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명칭과 구성의 변화 등 '문화재의 변이양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은 기능보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해결해야만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전승교육 과정과 전수자가 전수받은 기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기능보유자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점검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고 실시되지 않는다면,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온전히 보존·전승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변이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의 제도와 정책은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보급선양 및 활용을 통한 문화향상이 복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민속예술의 문화산업적 활용

민속예술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산업적 활용은 지금까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확대를 기반으로 주로 온라인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실제로 2002년부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우리문화원형'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이 디지털콘텐츠[온라인콘텐츠]로 개발되었고 그 결과물이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농악, 농요, 민속놀이 등의 무형문화유산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도 지역축제, 재현행사, 공연[연극, 창극, 춤극 등], 문화관광 등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속예술을 문화원형으로 한 문화산업적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은군의 송이놀이(속리산송이놀이)

이), 음성군의 거북놀이와 톡설가재출다리기, 충주시의 목계별신제와 양진명소오봉굿 등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주농악은 농악의 연희적 층면에 초점을 두고 보존 방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악의 연희성이 대중의 지향이나 대중문화의 속성과 부합하므로 그러한 모색이 농악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일정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속예술의 보존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도 '보존 방안과 발전 방안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는 층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훑어보건대 민속예술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보존과 발전 방안,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한 보존과 발전 방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보존과 발전 방안,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보존과 발전 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연컨대 보존 방안과 발전 방안, 나아가 문화산업적 활용은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존과 계승, 그리고 발전은 기존의 활용을 뛰어 넘어, 보다 생산적인 차원에서 문화산업적 활용을 통해 선양될 때 진정한 의미를 발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제1회 충북농악경연대회」팸플릿, 1994.
- 「제2회 충북농악경연대회」팸플릿, 1995.
- 「제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6.
-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7.
-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8.
-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1999.
-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0.
-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1.
-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2.
-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3.
-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4.
-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팸플릿, 2005.
-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팸플릿, 2006.
-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팸플릿, 2007.
-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팸플릿, 200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8.
- 국악협회 괴산지부 보관자료 – 지경다지기.
- 권오성, 「충북민요」, 『한국의 민속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 김경렬, 『복계의 정신과 문화』, 복계향우회, 2002.
- 김동식, 「단양지방의 민요」, 『충북향토문화』 제9집, 충북향토문화연구소, 1989.
- 김영진, 『청원군민속조사보고서』, 1992.
- 김영진, 『청원군의 농제』, 청원문화원, 2000.

- 김현길,『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청지사, 1984.
- 노한나,『보은의 빈요해설집』, 보은군, 2004.
- 노한나,『영동의 빈요해설집』, 영동군, 2007.
- 단양군청 보관자료 : 각기선돌봉치기.
- 덕산농악대, 이정수(덕산농악대) 필사자료 – 집터다지기.
- 문화부,『한국의 민속예술(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 문화재관리국,『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충청북도 편』, 1978.
- 박진,『충북향토민요집』, 1983.
- 보은군 내복면풍물회 보관자료 ; 전통흔례 행렬과 호상들이 징검다리 건너가.
- 보은군 산외면사무소 및 산외면 풍물보존회 보관자료 : 탕골개상제(탕골 풍년제).
- 보은군 산외면사무소 보관자료 – 송이놀이.
- 보은문화원,『보은 속리산의 민속문화』, 1998.
-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생기진천 용봉리농요보사보고서』, 2003.
- 양진환,『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엄성은,『전래농요 너리기편지기에 대하여』,『한국민요학』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 영동군,『영동설계리농요』, 1987.
- 오세란,『청주농악과 정읍농악의 소고춤 비교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윤성문화원,『윤성의 전통민속놀이』, 2005.
- 이보형,『농악에서의 길굿(길군아)과 채굿』,『민족음악학』제6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4.
- 이소라,『한국의 농요』3집, 민속원, 1989.

- 이소라, 『대전웃다리농악』, 대전직할시, 1991.
- 이창식, 『마을축제 오타별신제』, 푸른사상사, 2001.
- 이창신, 『청주목의 국악』, 청주문화원, 1999.
- 이창신, 『장뜰두레농요 조사보고서』, 증평군, 2005.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 장호순, 「민요 너리기편지기의 전승과 활용」,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 제천문화원, 『명도리의 생활과 민속』, 2002.
- 제천문화원, 『봉양의 과대놀이』, 2005.
- 조진국, 「청주농악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청원군, 『청원 현도두레농요』, 2008.
- 청주농악보존회, 『청주농악』, 청주시, 2010.
-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영동 부상리마을』, 2006.
-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 조사연구』, 2004.
- 충주시 국악협회 전봉근 보관자료 – 무등놀이.
-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지회, 『충북예총삼십년사』,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한반영, 「충북의 배틀노래」, 『한국의 민속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http://www.cha.go.kr/>(밀양백중놀이,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팔상진,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nfm.go.kr/index.nfm>(장치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 충북민속예술

펴낸날 2010년 12월 20일  
펴낸이 장현식  
펴낸곳 충북문화위원회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18  
          전화 043)265-3625  
          팩스 043)265-3626  
          홈페이지 : [www.cjmh.or.kr](http://www.cjmh.or.kr)  
          e-mail : [cc360@hanmail.net](mailto:cc360@hanmail.net)  
편찬위원 임동철, 박상인, 홍태한, 임병노  
사진제공 김윤기(사진작가)  
디자인 강경아  
찍은곳 일광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04번길 12  
          전화/221-294 팩스/222-8461  
          출판등록/2002-1001-118호

ISBN 978-89-92335-73-7 03900

